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봄을 상실한 듯 곤고한 심령 위에 평강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이 난국을 잘 이기고 믿음의 반석위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 현장예배 재개 때 안전이 최우선

#### CT, 공중보건전문회의 미해결 상황에서 예배 적용 단계별 제언 소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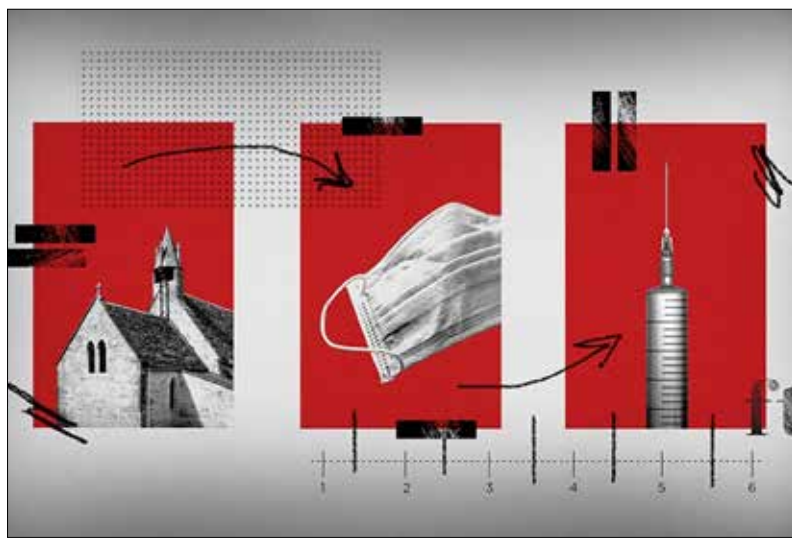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지난 4개월간 특별한 시기를 지나왔다. 새로운 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불비는 응급실, 인공호흡기를 단 위급한 환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는 엄격한 재택 명령을 시행해야 했다. 많은 국가가 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급속히 증가하는 감염이 의료관리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사망률이 빠르게 증가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미국 전역의 교회들은 예배와 사역의 문을 굳게 닫았다. 다른 예방조치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코로나19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수많은 감염과 사망을 막았다고 확신한다.

사역 재개 시기와 방법에 대한 어려운 결정

사역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로 하는 결정은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보다 더 어렵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두려워했고, 교회는 집단모임에 대한 정부의 제한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6주 이상의 재택명령이 내려진 후 실업률이 늘고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정부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염병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검사, 접촉추적 및 검역능력이 부족하다고 경고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제한을 완화하고 모든 사업체를 재개하도록 서서히 허용하고 있다. 많은 주 정부가 협동해서 일하지 않고, 국가 및 주차원의 정부지도자들이 혼란을 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고 있으며, 다가오는 선거로 인해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이 정치화되고 있다. 여러 의견이 우리에게 들려오



는 가운데 교회는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의사결정을 위한 이정표

대니얼 진 박사는 섬기고 있는 지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기 위해 두 개의 이정표, 즉 성경적 진리와 과학

지식에 의존했다. 대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한다. 나 자신을 아낀다면 이 유행병 기간 동안 감염되지 않도록 각자 조심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한 사랑도 타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중점을 두더라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영적, 정서적, 사회적

요구가 있다. 이 사회적 격리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러한 요구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예배, 기도, 격려, 말씀듣기, 제자훈련, 봉사를 하면서 부르심을 따랐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과학 지식

전 세계적으로 최선을 다해 현재 코로나19를 연구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지식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많은 국가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있다. (3면으로 계속)



### 코로나19, 크리스천 연결방식 변화시켜

#### Churchleaders.com, 교회관리시스템 전문가의 달라진 교인 연결/소통방식 소개

새로운 통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교회는 일반적으로 가장 앞서 있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에서 처음으로 인쇄된 책은 성경이었으며, 1950년대와 60년대에 '빌리 그레이엄'은 위성방송 기술을 이용해 전 세계적인 텐트 부흥집회를 만들기도 했다. 애플스토어나 유튜브를 잠시 훑어보아도 수십 가지의 성경읽기 앱, 성경읽기 계획, 설교 팟캐스트를 볼 수 있다.

최근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는 주일날 하는 회중예배와 평일저녁에 모이는 성경공부 등 일주일 단위의 리듬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이라는 세계적 유행병은 인류와 교회를 새롭고 전례가 없는 현실로 밀어 넣었다.

텍사스주 달라스에 위치한 교회관리시스템인 '터치포인트 소프트웨어'의 마케팅 매니저인 레아 데븐포트(Leah Davenport)는 코로나19가 신자들의 연결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해준다(COVID-19 is Changing the Way Believers Connect).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안으로 피신해서 가족의 일원이 아닌 누구와도 거리를 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뉴노멀(new normal)”은 교회가 교인들을 돌보는 방식을 바꾸도록 강요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새로운 희망은 비디오컨퍼런스, 소셜 미디어, 그룹챗, 라이브스트리밍 등의 기술을 이용해 신자들이 다양한 디지털 경로로 서로 연결되는 것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시론 김인환 목사



푸른초장 이준성 목사



코로나19와 교회 (2) 퀸즈장로교회 기획위원회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i.edu | (213) 665-0009 | 650 Shatto Pl., Los Angeles

성경말, 성경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chpress.com | chpress@chpress.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모두 거짓말을 한다, 침묵, 말그릇, 독특한 사람들의 명칭한 선택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복음사 562-865-4949,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메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 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 발행인 칼럼 ●

### 6월 2일 오후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어느덧 6월이 된다. 적어도 5월말이 되면 다소 변화가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여러 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내려놓을 수 없다. 포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다. 포기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 포기는 절망과 패배의 친구다. 그렇다. 인생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6월은 무엇인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푸르른 계절이다. "6월의 절망"은 너무 사치한 표현이다. "6월 2일 오후"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느 해 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이다.

5월 5일 오전: 세인트앤드루교회에서 설교했다.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가서 다시 오지 마시오!" 오후: 세인트존교회에서 설교했다. 교회 집사들이 "당장 나가서 절대 다시 오지 마시오"라고 했다. 5월 12일 오전: 세인트유다교회에서 설교했다. 다시는 그곳에 갈 수 없다. 오후: 세인트조지교회에서 설교했다. 다시 쫓겨났다. 5월 19일 오전: 세인트앤드루교회에서 설교했다. 나더러 다시 발도 붙이지 말라고 했다. 오후: 거리에서 설교했다. 거기서도 쫓겨났다. 5월 26일 오전: 초원에서 설교했다. 황소고삐가 풀리는 바람에 도망쳤다. 6월 2일 오전: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했다. 마을 밖으로 추방당했다. 오후: 목장에서 설교했다. 만 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왔다.

5월은 물론 6월 2일 오전까지도 볼 수 없었던 일이 그 날 오후에 벌어진 것이다. 일만 명이 참석한 집회가 그때 펼쳐진 것이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6월 2일 오전에 "내가 이토록 노력해도 사람들은 몰라주고 내 마음만 아프니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자"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 어려운 환경에 주눅 들지 않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대반전의 6월 2일 오후를 맞게 되었다.

우리에게도 대반전의 6월 2일 오후가 있다. 가슴의 희망이 눈앞의 실재가 될 그 날, 그 시간이 있다.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꽃이 어디 있겠는가. 바람은 꽃을 잘 자라게 하고 짙은 향기를 토하게 하는 꽃의 절친이다. 넘어짐은 또 어떤가.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잠언 24:16). 넘어짐 없이 걷고 또 어른 된 사람이 있는가. 없다, 한 명도 없다. 일곱 번씩 넘어지는 것이 왜 문제이겠는가. 그것이 무슨 부끄러움이겠는가.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지 않음이 문제요 부끄러움이다. 6월 2일 오후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 날이 오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역경 속에서 희망을 붙잡지 않고도 우뚝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에도, 역사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 6월 2일 오후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주변을 힘들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절망과 포기를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희망 갖게 하시고 그 어려움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성장과 성숙을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들리시는가. "짜각 짜각" 6월 2일 오후가 다가오는 시계 소리가.

## 장기간 지속되는 전염병, 사람 마음도 바꾼다

### BBC, 코로나19 질병의 두려움이 인간 심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부분 언론사는 지난 몇 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가장 중요한 기사로 다뤘다.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은 최신 사망자 수를 연일 보도했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역시 코로나19 통계와 관련 조언으로 가득 찼다. 이런 정보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우리 정신건강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 불안 역시 심화된다. 이런 끊임없는 위협감은 심리에 또 다른 영향을 남긴다. 병에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람들을 '순응주의자'나 '인종주의자'가 되게 한다. '이민자' 또는 '성 평등' 같은 주제에 있어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은 더 가혹해지고 사회적 태도 역시 더 보수적으로 변한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마저도 흔들린다.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은 이런 현상의 사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관련된 과학적 예측들이 맞다면 코로나19는 훨씬 더 깊은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BBC는 분석했다(The fear of coronavirus is changing our psychology).

대부분의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질병에 대한 반응은 선사시대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의학이 탄생하기 전 감염병은 생존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였다. 질병에 걸리면 우리 몸은 생리적 에너지를 활발하게 소비한다.

예를 들어, 몸에 열이 나면 효과적인 면역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신체 에너지 소비량이 13%가 증가한다. 음식이 부족했던 선사시대에는 이런 에너지 소비 증가가 각자의 몸에 심각한 부담이었다.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해, 사람들은 보다 순응적으로 변하고 일상을 벗어나는 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도덕적 판단은 더 가혹해지고 사회적 태도 역시 더 보수적으로 변한다."

보이는 음식을 피하는 것은 잠재적인 감염을 피하기 위한 우리 몸의 본능적 반응이라는 뜻이다. 이미 상한 음식을 먹었다면 몸은 구토하도록 유도한다. 몸에 병원균이 자리 잡기 전에 이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를 들어 현재의 위협과 상관없는 주제를 듣고 나서 도덕적 의사결정이나 정치적 의견을 바꾸는 식이다.

이제 문화적 규범에 대한 일관적 태도와 이를 깨뜨리는 사람을 살펴보자.



질병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질수록 참가자들은 동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통에 투표했다. 자신의 고유한 의견보다는 무리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한편, 참가자들에게 좋아하는 사람을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술적이거나 창의적인 사람들보다는 전통적이거나 평범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람들은 감염 위험이 도사릴 때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참가자들은 감염 위험을 느낄 때 설문지에서 '사회 규범을 어기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와 같은 문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홍콩대학의 연구진 역시 전염병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사람들을 더 순종적으로 이끈다는 실험 결과를 밝혔다.

왜 행동면역체계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까?

살리는 많은 암묵적 사회 규칙들이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류 역사상 규범과 의식들이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면서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보건 의료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전염병이 발발하면 관습에 따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전염병 발발 상황에

### 위협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 '행동면역체계', 혐오반응 초래 편견과 외국인 혐오 위험 내포...사회적 규범 더 존중 경향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의 마크 살러는 "병에 걸려 면역체계가 작동하면 그 대가가 매우 크다"고 말한다. 살러는 "면역체계가 의료보험과 비슷하다"면서 "있어서 좋긴 하지만 실제로 작동해야 할 때 골치 아프다"고 말한다.

따라서 과거엔 애당초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게 생존에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이런 이유로 인류는 무의식적 심리 반응을 발전시켜왔다. 살리는 위협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을 '행동면역체계'라고 정의했다. 행동면역체계는 잠재적 병원체와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한다.

'혐오반응'은 명백한 행동면역체계의 요소 중 하나다. 우리가 나쁜 냄새가 나거나 더러워

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질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 덕분에 병에 걸릴 위험이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진화해온 사회적 동물이다. 하지만 행동면역체계는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지속해서 수정해 왔다. 그 결과 일종의 본능적인 '사회적 거리'가 만들어졌다.

덴마크 오르후스대학교의 레네 아로는 "행동면역체계는 '미안함보다는 안전함이 낫다'는 논리 하에 작동한다"고 말한다. 이는 행동면역체계에 기인한 반응 중에서 잘못된 경우가 많으며 관련 없는 정보들에 잘못 작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

다양한 실험결과, 사람들은 질병의 위험을 느낄 때 더 순종적이고 관습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살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전에 아팠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해 병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느끼도록 한 다음 여러 실험을 진행했다.

한 실험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대학 채점 방식을 변경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찬성 또는 반대라고 표시된 통에 동전을 넣어 투표할 수 있었다.

서 도덕적인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역시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감염이라는 두려움을 느낄 때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질병과 관련된 미세하고 미묘한 생각조차 우리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986-4400 (대표)  
Fax: (718)986-0074 (대표)  
E-mail: nykcp@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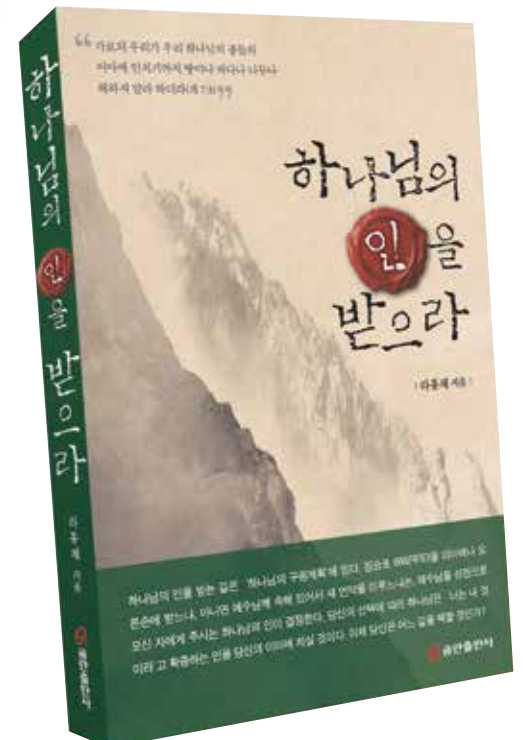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현장예배 재개 때 안전이 최우선

(1면에서 계속)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 교회와 관련된 해 사역을 재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초기에는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코로나19가 전염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이것은 왜 바이러스가 그렇게 쉽고 은밀하게 전염되는지를 설명하고 전염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감염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될 때 전염이 확산된다.

-코로나19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염성: △호흡기 비말을 주변 공기 중으로 방출하는 행위 △감염된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경우(2미터 이내) △외부 환기가 제한된 밀폐된 환경 △감염된 사람과 보내는 일정한 시간 △다수의 사람이 모인 모임의 유형(예. 세대 간 헌화)

이러한 요소가 많을수록 전염 위험이 커진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되면 전염 위험이 줄어든다.

젊은 사람들과 어린이가 코로나19에 더 강하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는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양과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능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 노인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전염을 막으려면 세대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사망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위험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은 노인들에게 중점을 두었다. 그런 다음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일반적인 만성질환을 가진 젊은 성인들도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 중 60%가 65세 미만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5%가 심각한 코로나19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비율의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코로나19 합병증의 위험에 처해 있다.

셋째, 우리는 어떤 통제수단이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해야 한다

실험사례, 연락처추적 및 격리를 통해 중대한 제재 없이 코로나19 전염병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한국과 대만이 성공적으로 이 일을 해냈다. 증상이 시작된 후 2-3일 이내에 코로나19 환자를 검사하고 대부분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격리한다. 이는 한국과 대만이 신속하게 연락처를 찾고 격리하기 위해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 기능과 함께 잘 만들어진 연락처 추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사람이 기침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호흡기 비말이 주변 공기로 방출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있다. 마스크 사용의 주요 이점은 감염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는 것이다. 감염된 확률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수제 천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보다 효과적이지 않지만 쓰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된 사람이 코를 문지르며 접촉한 표면에 바이러스가 닿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의 감염 정도만 다를 뿐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코로나19 사례가 여전히 높거나 이제 막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여러 주에서 이제서야 재택명령을 시작했다. 따라서 전과는 계속되고 새로운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광범위한 검사와 효과적인 접촉추적 및 격리를 통해 증가율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검사와 훈련된 직원, 효과적인 추적과 격리가 미국의 모든 지역에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 완벽하게 통제 불가능한 전염병이 계속 존재하는 한, 전염병 사례를 크게 줄인 지역도 주변 지역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코로나19, 크리스천 연결방식 변화시켜

(1면에서 계속)  
교회 지도자들은 실재면 모임의 주 최자에서 매일의 온라인 교사와 미디어 프로듀서로 바뀌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연령대가 있는 회중들은 온라인으로 드러지는 예배나 소셜 미디어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진 후의 모습은 어떠할까?

국가 전역에 이동금지령이 내린 첫 일주일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오직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들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만약 소통하려는 동기가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 모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줌(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연세

가 드신 분들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를 격려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우리는 온라인 교회가 실재면 교회와 똑같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는 더 가까이에서 촬영했고 보다 친밀하고 편안한 환경을 사용했으며 모든 사람이 카메라와 눈을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예배'는 드리는데 35분이 걸렸지만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

여러 기술들은 교회가 이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형태의 인간 연결에 회중이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한 예로, 회중들이 헌금함을 돌릴 수 없게 되자, 교회는 회중들이 '온라인헌금'에 등록하도록 권장했다. 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헌금은, 헌금을 챙겨오지 못했거나 하는 일들로 인해 헌금을 내는 것이 불확실하게 될 때,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람직한 선택

일 수도 있다.

'교회관리시스템'은 교회 스태프들과 신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개개인에게 개인화된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모바일에 맞춰 디자인된 교회관리시스템은 실시간에 예배 스트리밍이나, 가족이 집이나 가상그룹에 연결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가능한 리소스를 내장하고 있다.

교회는 항상 복음을 나누고 신자들의 연결을 돕기 위해 혁신적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사용해온 조직이었다. 초대교회는 가정집에서 회중들이 직접 대면했었다. 코로나19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형식으로 돌아왔다. 다만 디지털채널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이다. 결국에는 교회는 공동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교회는 뉴노멀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 시론

### 후원금 오용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요즈음 한국에서는 후원금오용 문제로 매우 시끄럽다. 일제시대 때 꽃다운 나이에 일제의 강압과 감언이설에 속아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인권유린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적인 삶을 강요당하면서 인생을 망치게 된 우리들의 할머니들의 인권회복과 그 보상을 목적으로 결성된 NGO단체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그것을 계승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그동안 각계각층으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 제기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동안 수차례 폭로되었지만,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그 단체 설립당시 간사로 참여한 윤미향씨가 이사장으로 오래 활동해오다가 이번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것을 계기로 창립 초기부터 그와 함께 30여년 동안 활동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중 한분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헌금 들어오는 거 알지도 못하지만, 성금·기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폭로하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이 위안부 대책 관련단체에게 속고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하며, 윤미향씨는 자신들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데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급기야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으며, 사법당국의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이 꼬마아이들부터 각계각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모금한 돈과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돈은 어마어마하였다. 그들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목적 이외의 용도와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에 대한 해명자료는 거짓과 은폐 투성이었다. 심지어 초기 창립시 참여하였던 여성 인권지도자들의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은폐 미화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와 기타 권위 있는 회계사들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정의연이 국제청에 보고누락한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재정 보고서는 엉터리였다.

윤미향씨는 모 신학대를 졸업한 운동권 출신으로서 민중신학에 심취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에 의해 그 전모가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봐도 그는 단체 창립의 숭고한 목적을 완전히 약용하였고, 자신의 정치적 출세와 지지세력 확충에 몰두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녀는 더 이상 이런 운동을 이끌어갈 지도자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임에 틀림없다. 그가 지금까지 속여온 피해 할머니들과 그 많은 후원자들에게 속죄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깊이 회개하는 것이 그야말로 할 일로 사료된다.

이 사건은 우리 교회와 신학대를 포함한 각종 기독교 사학과 선교단체 등등의 기독교 단체,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인들의 각자 청지기적 삶에 매우 중요한 교훈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께 헌신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신학대를 포함한 각종 기독교사학들은 재단의 기부금과 학생들의 등록금 및 각계각층의 후원금으로, 선교단체와 선교사는 선교에 뜻을 둔 교회와 성도들 단체들의 선교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신앙인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성취하도록 주신 물질(하나님의 후원금)로 인생을 사는 자들이다.

(12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Tel. 718)762-0011 / 뉴저지(Tel. 201)346-0030  
 40-21 159th St. #18 Flushing, NY 11358 / 5 Brinckhoff Terrace Palisades Park, NY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색소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사업  
 매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 201.431.9753  
 진료.안내: -치아식(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7

The Korean Christian Press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전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 718-886-4400  
 chpress.kjs@gmail.com / info@chpress.net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교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 코로나로 인한 환란

불란서의 천재 몽테뉴(Montaigne 1533-1592)는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었다. 신장결석으로 반평생을 고생하였고, 아버지와 사랑받는 딸을 잃었으며 남동생은 어이없게 테니스공에 맞아 죽는 비극을 현실로 대면해야 했다. 다정했던 친구마저 세상을 떠나자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리고 법관직을 내던져버리고 고향으로 은둔해 버려야 했다. 그는 서재에 루크레티우스의 경구를 붙여놓았다. "더 오래 살아봤자 새롭게 얻을 것이 없다" 그런데 몇 년 뒤 이 암울한 경구를 떼어버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학작품으로 손꼽히는 에세(Essais)를 발표했다. 고난이

야말로 인생의 질곡에서 더 깊은 샘물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작품으로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비참한 상황을 맞고 있다. 영국에서는 25살 된 기저질환이 있는 앞날이 창창한 처녀가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유언 한마디 못하고 죽어갔고, 세계 초 일류국가라는 미국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곁에 위로하는 가족 없이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다. 이태리에서는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야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했고, 또한 공부를 잘해야 갈수 있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의 긴 과정을 거쳐 의사 가운을 입게 된 의사들이 무려 3백 명 이상이나 죽어간 상황을 맞이했다. 지극히 평화로운 시대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우리는 수시로 만나고 있다.

공산주의 이념은 사람을 하

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물질로 본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길 때 가차 없이 죽인다. 그래서 스탈린은 2천3백만 명을 죽였고, 모택동은 7천8백만 명을 죽였다.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쓸모없는 존재요, 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인,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 죽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위로하고 잔인하게 처리한 자를 처단하기는커녕 여전히 모택동은 지금도 존경의 대상이다. 그런 중국을 흠모하는 자들도 있고... 아마도 세상은 이런 악한 사상이 착한 가면을 쓰고 미소 짓는 일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하박국 선지자는 공의가 사라지고 죄악이 팽배한 세상을 탄식하며, 어찌

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며 악인이 득세하는 데도 잠잠하 시느냐고 호소한다(하1:13).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상과 비슷하지 않을 까 싶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말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말이다. 낙심하거나 비판만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고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로 인한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비극을 너무나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는 아닌지 모른다.

항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유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로마의 희극 시인 중 한 사람인 레렌티우스(Bc195-159)가 자신의 희극에서 크레메스의

입을 빌려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에 관한 것 중에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는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의 대사로 인용될 정도로 유명한 말이다.

치열한 전성터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흔한 유언 한마디 없이 죽어가고 있다. 마치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난파를 당한 사람처럼 말이다. 그 많은 소망과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한계 효용의 법칙처럼, 우리는 지금 이런 정황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환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깨달아야 할까?

오늘은 로마가 흐리고 바람까지 심하게 분다. 마치 그 옛날 영웅 시지가 알살당했다는 소식이 로마시민들에게 알려진 날처럼...

locielo88@naver.com

# 푸/른/초/장

## 이준성 목사

(뉴욕 양무리교회)



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데(약1:15) 사람이 죽는 것은 돈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출발은 욕심이라는 덩어리입니다. 돈 번다고 죄짓는 현실은 인신 매매를 했던 가톨릭과 같습니다. 주일도 일하는 예수 믿는 자들은 아직도 마음과 손을 들지 못하고 자신 욕심 따라 죄짓는 자녀들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6:23) 그런데 그 죄를 출발시키는 원인이 욕심이며 그 욕심의 배후는 마귀입니다. 성경은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요8:44)라고 마귀를 설명합니다. 모든 망한 일 뒤에는 반드시 욕심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습니

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롬6:23) 그런데 그 죄를 출발시키는 원인이 욕심이며 그 욕심의 배후는 마귀입니다. 성경은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요8:44)라고 마귀를 설명합니다. 모든 망한 일 뒤에는 반드시 욕심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습니

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롬6:23) 그런데 그 죄를 출발시키는 원인이 욕심이며 그 욕심의 배후는 마귀입니다. 성경은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요8:44)라고 마귀를 설명합니다. 모든 망한 일 뒤에는 반드시 욕심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습니

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롬6:23) 그런데 그 죄를 출발시키는 원인이 욕심이며 그 욕심의 배후는 마귀입니다. 성경은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요8:44)라고 마귀를 설명합니다. 모든 망한 일 뒤에는 반드시 욕심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습니

고 기도와 전도와 찬양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주를 복으로 그리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겹세마네의 눈물과 같이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와 공생애 의지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또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 얼마나 통곡하며 목 놓아 울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결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목 놓아 우는 일에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까?(애가1:12)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2-3). "부르짖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망하지 마십시오. 저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렘17:5). 여호와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단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말씀)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한가"(렘8:18-22).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울면서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는 내 잘못에 대하여 언제까지 핑계나 변명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객관화하고 나를 분석하여 철저히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나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합니까? 이웃의 아픔에 동참합니까? 그 고통을 나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애1:12). 신앙이 망해가는 이 시대에 눈물을 시내처럼 흘리면서 하나님을 볼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flocks3927@gmail.com

### 1. 돌아가자!(v40)

렘25:5에서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왜 국가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며 개인이 멸망합니까? 스스로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람의 뜻이지 내 잘못은 없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부터 점검해야 하며 정직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점검이 없는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분노의 때로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3:1). 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롯에게는 고난입니까? 왜 노아시대의 홍수가



행위를 조사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은 "우리 모두 살아온 길을 돌아켜 보고"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조사하고 생각해보면 죄악의 근본은 자신임이 금방 드러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 하고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전제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과감히 돌아야 하듯이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최선의 길입니다.

본문 47절은 "두려움과 함정이 우리 위에 임하고 황폐함과 멸망이 닥쳐왔습니다"라고 호소합니다. 두려움과 함정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폐함과 멸망이 닥쳐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COVID-19라는 천벌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울무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울무(시18:5)와 밭상의 울무(시69:22) 그리고 악한 자들의 울무(시64:5) 또 새 사냥꾼의 울무(시91:3)가 있고 우상의 울무(시106:36)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는 울무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점검하고 살펴보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노아에게는 고난입니까? 왜 배교운동이, 동성애가, WCC가, 종교탄압이, 심계명 철폐가, 차별금지법이 신앙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고난입니까?

결론은 믿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때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물렸다면 좋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때를 알기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 2. 마음과 손을 들자!(v41)

마음을 들고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경제나 정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상달되지 않습니까?(v44) 그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3:39). 우리가 마음과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항복한다면 왜 기도가 막히고 경제나 정치가 막합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그것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손과 마음을 들

# 울자! 목 놓아 울자!

## 예레미야애가 3장 40-54절

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인생 들입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의 열매가 나옵니다. 도둑놈은 도둑질을 하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죄는 사탄으로 기인했지만 그 현상인 자범죄는 원죄가 있는 우리들의 자연스런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욱 하나님께 항복하는 진실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항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 3. 울자! 목 놓아 울자!(v50)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울자! 목 놓아 울자!" 내 죄를 놓고 목 놓아 울자!

죄의 고통을 뱉속 깊이 느껴 다면 그 아픔을 알았다면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목 놓아 울자는 것이 선지자의 절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48절, "딸 내 백성의 멸망으로

를 포함한 눈물입니다. 물론 휴머니즘 자체가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은 휴머니즘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눈물(눅19:41)입니다. 애국심 자체가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안에는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도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겹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마26:37. 히5:7)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꿀 십자가의 눈물이며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눈물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가 구원 받도록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파멸로 이끄는 자들은 여호와와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렘23:30)들입니다.

임팩트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렘20:1). 요시아의 아들 살룸(여호야하스). 그의 아들 여호야김(엘리아김).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백성 그리고 궁중의 고관들(렘26:8). 선지자 하나냐(렘28:10). 스마야(렘29:31). 유다왕 시드기야(렘32:2)... 총체적으로 도둑놈들이고 도둑놈 국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애3:25-26). 말씀이 도둑질되어지는 이 시대에 포기하지 않



30년 암 전문가로 유명한 이 병욱 교수가 쓴 '암을 손쉽게 대접하라'는 책이 있다. 암환자들에게 좋은 마음자세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암을 불속 찾아온 손님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찾아온 손님을 내어 쫓지 않는 것처럼 이미 내 육체에 들어와 버린 암이라면 일단 인정하고 시작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암을 상대하는 나를 강하게 단련하면서 면역력을 키우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암은 전혀 반갑지 않은 흥하고 불길한 것이다. 어떻게 손님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회복해서 사는 길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만하지 않은가!

**대재앙과 신앙의 장기전**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지 시간이 꽤 되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확진되었고 죽어가고 있다. 이곳 세계 최강대국 미국만 해도 100만을 훨씬 넘었고 생명을 잃은 숫자만도 10만에 근접했다. 남미와 아프리카와 중동까지 생각해보면 이것은 비상사태 정도가 아니라 대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가운데

**1. 가정예배의 회복**

코로나로 인해 교회 가정들에서 가장 유익했던 것을 찾아 보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정 예배의 회복'을 말할 수 있다. 본인의 가정에도 두 아이가 대학교진학 후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만 만나 예배하고 그것마저도 여의치 못했었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감사의 유익을 얻게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문제가 없었으면 놓칠 수도 있었던 아이의 장래와 고민들을 들을 수 있었고 함께 해법을 찾게 된 것이다.

더불어 일정한 시간의 가정예배가 아이들에게는 가정에서의 지루할 수 있는 생활의 단편들을 영적으로 재무장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고, 부모인 우리들에게도 장성한 아이들의 고민과 생각들을 이해하면서 늘 어린아이 같았던 자녀들에게서 이제는 부모세대를 떠받치는 든든한 신앙의 동역자와 같은 마음의 느낌도 가지게 하였다. 이인생활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 대부분이 고교시절까지 제한이 되었었는데, 금번에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를 엄청난 유익을 가져왔다. 가정예배는 순종하여 드려온 가정

도한다. 특별히 세 가지를 더 기도하게 하는데, 일제35년 분단70년 105년 동안 한 번도 자유를 누리보지 못한 북한의 굶주림과 회복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어려움을 이기는 일에, 2020년 모든 사역의 핑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가 되지 않도록 이런 혼란 중에도 최선의 사역이 진행되도록 기도하게 한다.

경건은 훈련이다. 기도는 특히 훈련이다. 그래서 순서를 따라 6개 제목을 5분씩 30분 동안 시간을 정해 기도하도록 훈련한다. 수요예배나 금요일예배에 일정하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강단 그 자리에서 통성으로 5분 간격으로 시간을 지정해주면서 3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을 함께 해보는 것이 훈련의 좋은 방법이다. 기도훈련이 되고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사람이 당당하고 담대해지는 것을 본다.

**4. 교회사역 적극적 참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변형된 사역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한다. 본 교회도 이모양 저모양 여름사역들이 많이

같다. 그러나 여기에는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의 성전을 향한 사랑이 묻어있다. 어려운 시절에 기도하고 눈물부리며, 멀리서 교회 십자가만 보여도 마음이 울컥했던 분들의 신앙을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 혹은 교회에 대한 이성의 무지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들이 맘 흘려 헌신하던 교회 구성구석이 사랑스럽고 그리운 것은 너무 당연하다. 실제로 순교의 시대는 피를 제단에 뿌렸다면, 이제는 교회와 복음을 위해 맘 흘리며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불어 젊은 세대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기에, 주중 낮 시간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운동도 하면서 어찌든지 교회를 향해 가까이 나아오도록 한다.

**6. 개인적 나눔과 섬김**

구역장과 성경공부 조장에게는 당연히 요구되는 나눔과 섬김의 일을 모든 성도들에게도 강권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 가정에 재난구호금을 지원했다. 생각지 않았던 선물이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심의 일을 드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신앙의 일상성 회복**

-예배, 말씀, 기도, 섬김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누구도 그 끝을 장담할 수 없는 한마디로 괴이한 염병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과연 이러한 때를 지나면서 그저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피하기만 하는 것이 능사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주변의 암환자들을 본다. 그들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빨리 인정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최선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을 본다. 포기하고 두 손을 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항암의 고통 중에도 생존법을 배우며 생존법을 체득해가는 것이다. 대부분 절망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을 보면 정말 절로 응원의 기도와 눈물이 나온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도 비슷하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포기하듯 사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장기전을 적절히 잘 준비해감으로 간증을 남기는 이들도 많이 있다.

삶속에서 어려움이 길게 이어지면서 나름의 일상적 적응력을 갖추어간다면, 신앙에 있어서도 장기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언제든지 감염이 생활중심부 가까이 올 수 있음을 생각하며 최선의 주의를 하면서도,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긴장가운데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좋은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본 교회가 시행하면서 좋은 간증을 남겼던 몇가지를 소개하면서, 아주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만이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 축복의 통로이다.

**2. 매일암송, 매일찬양**

교회에서는 주 6일 동안 새벽예배를 성전과 가정에서 동시에 드린다. 새벽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날의 암송구절과 간단한 성경해석 그리고 그에 맞는 찬양을 선곡하여 전체 성도들이 있는 카톡방에 전달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종일 그 말씀을 암송하며 적용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날 그 찬양이 나의 찬양, 나의 감동이 되도록 부를 수 있도록 한다.

암송말씀은 새벽과 같은 말씀이면 더 좋지만, 암송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에 달라도 상관없다. 찬양은 어렵지 않으면서, 유튜브영상을 이용하면 주제별로 잘 찾을 수 있다. 카톡의 경우는, 너무 개인적인 댓글을 달지 않도록 미리 사역자들만 올릴 수 있는 공격계시판임을 강조하면 중간에 나가버리는 기분 나쁨(?)을 예방할 수도 있다.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최상의 실행이 '말씀암송과 찬양'이다.

**3. 시간을 정해 기도훈련**

성전과 가정에서 새벽예배, 혹은 개인 경건시간을 가질 때 최소한 30분기도에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한다. 자신의 영혼과 삶을 위해, 가정과 가문과 자녀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와 현재 당면한 사역을 위해, 나라와 민족-한국과 북한과 미국을 위해, 후원 선교지와 개척교회를 위해, 코로나19의 회복을 위해서 총 6가지의 기도제목과 가지고 기

미취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각 가정에서 '영상 찬양대회'를 가정별 영상물로 제출하도록 하여 가정마다 찬양으로 큰 위로가 되었다. 또한 66일 동안 하루에 한권씩 성경 66권을 4명의 목회자가 새벽마다 강론하는 '어른어른성경학교(A-VBS)'를 개설해서 진행 중이다. 또한 예전처럼 여름성회를 3-4일씩 할 수 없어서, '회복성회'라는 이름으로 매일 강사를 정해 외부 강사가 전하는 별식의 은혜를 맛보게 한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의 사역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강권한다. 줌을 이용한 영상수업, 성경공부 및 기도방 개설, 장년성경공부방 개설, 선생님들이 시험 및 과제물들을 가정으로 택배하도록 하는 등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적극참여하도록 한다.

6.25전쟁 중에 피난민 판자촌에서도 학교가 개설되었던 역사를 읽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생명 거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떤 혼란 중에도 말씀교육은 진행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교회가 시간이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쓴 열매가 자라게 될 것이다.

**5. 언제나 보이는 교회로**

성전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한 가지 더 드리는 것이 파킹장 예배이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과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배려이다. 가정과 동일한 영상이지만, 몸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눈으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이다.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예배와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목사가 별나다 싶을 것

리고 다음으로 이웃을 위한 섬김에 심의 일을 드리도록 권했다. 기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과 고환율로 인해 한국에서 송금이 어려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나눔을 가졌다. 더불어 성도들 모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보다 더 힘든 이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이를 행하도록 했다.

이 일에 순종하여, 홀로 사는 여든 연세의 어른이 주중에 떡을 만들어 주일에 들고 오셔서 나누는 것을 보았다.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어려운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 대신 장을 봐드린다. 자신의 집에 키우는 야채를 잘 다듬어 나눈다. 1인 가족에게는 찬양영상축제에 참여하기 어려움을 알고는 집을 찾아가 녹화를 도우며 함께 찬양을 드린다. 이러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기 전임에도 끈끈한 사랑으로 성도들은 따뜻한 지체의 사랑을 상호 느끼게 된다.

**7. 예배를 긴장감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설교자와 대면하여 예배드리게 되니 영적 긴장감을 가지기가 쉽다. 그러나 문제는 가정에서의 온라인 영상예배이다. 몇 배로 긴장하지 않으면, 예배를 실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별히 부모의 긴장을 필요로 한다. 교회에 가듯 똑같이 기상해서, 옷을 갖춰 입고 성경과 예물을 들고, 교회의 예식 순서에 주의하면서 잘 따라가야 한다. 혹여 가정이기에 편하고, 어려운 시기라는 핑계로 예배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된다면 예배를 통해 주시고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제 형은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형과 달리 성격과 기질이 차분하고 소심한 편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데 리더십의 유형을 알고 싶습니다.  
- 하시엔다에서 김 집사

**A:** 좋은 질문입니다. BC460-375년에 살았던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라는 분이 사람의 체내에서 분비되는 체액에 따라 4가지 기질로 분류하였습니다. 피색을 다혈질, 끈끈한 액체를 점액질, 담즙 중에서도 누런색의 담즙을 황담즙질, 혹은 담즙질, 검은 색의 담즙이라 하여 흑담즙질 혹은 우울질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질론은 19세기까지 사람들의 기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크리스천헤리티지를 설립한 목사로 상담가인 팀 라헤이라는 목사는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서 기본적인 4가지 기질로 첫째 점액질, 둘째 우울질, 셋째 담즙질, 넷째 다혈질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 점액질은 성격이 명랑하고 유머가 많으며 카운셀러가 되기에 적합한 기질입니다. 점액질의 약점은 결단력이 약하고 게으름이 특징입니다.

둘째, 우울질은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분석적이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며 이 기질은 앞에서 하는 것보다 뒤에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는 완전주의자이고 희생정신이 있으며 자기 능력을 알기에 능력 밖의 일은 맡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울질의 약점은 지가 중심적이며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우울증환자가 되기 쉽습니다. 남이 소근소근하고 말하면 대뜸 자기를 비

**점액질, 우울질, 담즙질, 다혈질 4가지 유형분류**

관한다고 단정하고 냉소합니다. 완전주의자이기에 남에 웬만큼 잘해도 칭찬하지 않고 남의 좋은 점보다 단점을 잘 발견합니다. 그리고 보복심이 강합니다. 우울질은 자기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동료들보다 우수한 위치에 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약점으로 인해 신경질과 수심이 뒤덮히고, 자신을 즐기지도 못하고 남을 즐기지도 못하는 우울증환자가 되어 동료들보다 열등한 위치로 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뛰어난 인물들이 이 우울증에 속한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로가 됩니다.

셋째, 담즙질은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능력을 크게 신뢰하는 편이며 투쟁력이 강합니다. 항상 활동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리는 결정들은 이성적인 분석보다는 직감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담즙질은 원래 '지도자적인 자질'을 다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강력한 그의 의지는 그룹을 이끌기에 충분하고 모든 사람들의 훌륭한 판단자가 되며, 긴급사태에는 빠르고 대담한 태도로 일을 처리합니다. 지도자로 임명되면 곧 이를 수락하거나 때로는 자진해서 일을 맡고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모든 일을 떠맡는 사람'으로 불리웁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협조할 것입니다. 약점은 사과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많은 경우 인정 없이 통명스럽고 또 냉소적인 말을 냉정하게 내뱉습니다.

넷째는 다혈질인데 이 사람은 지난간 일들을 쉽게 잊어버려 과거에 굴지 아프고 복잡한 문제들을 머리속에 남겨두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미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다가올 곤경에 대해서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에 따라 살기 때문에 낙관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끝없이 일을 하며 휴식을 모릅니다. 자기능력의 한계를 잘 모릅니다. 일은 곧잘 하는데 끝마무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기질들은 혼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혈담즙질입니다. 지도자 형의 베드로가 이 기질입니다. 담즙우울질이 있는데 안드레나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리더보다 조력자 스타일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마치 위기 앞에 부득이 함으로 예배를 해치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왕을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 자신과 자녀와 손자까지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지는 것을 보지 않는가.

가정에서의 영상예배는 편하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난다. 그래서 특별히 '유무형의 교회, 교회 밖의 구원, 영상예배의 성경적 근거, 건물지상주의의 폐해 등등'의 수많은 생각들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는 그 눈거름을 제발 잠시 멈추고, 성전예배가 회복되기까지 긴장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

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때에, 어떻게 하면 신앙의 일상성을 잘 회복할 수 있을까를 본 교회에서 행하는 일곱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생각해보았다. 지역과 환경 조건이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어찌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주께서 친히 처한 환경들에 맞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라 믿어진다. 다른 일도 아니고, 환란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싶어 하는 주의 피 값으로 산 몸 된 교회에 왜 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주여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davidnjon@yahoo.com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말레이시아의 북부 사카이(NORTHERN SAKAI)

북부 사카이족은 테미아르로 더 잘 불리우며 말레이시아의 페락과 케란탄 지역인 산악지역 내륙열대지방에 거주한다. 그들은 오란 아슬리로 불리는 토착민이다.



동안 정부차원의 보호를 받았다. 요즘은 지역경찰이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은 말레이 사회에서 북부 사카이족의 접촉을 감소시키고 있다.

삶의 모습

북부사카이는 경작방식이 어느 정도 유목민의 방식을 따른다.

다. 그들은 항상 화전법으로 경작하고 사냥과 낚시로 보충하며 기술적인 발전과 상관없이 생활하고 있다. 마을 주위의 경작할 수 있는 땅은 2년 후 고갈되기 때문에 공동부락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만 한다.

1970년대 이후 북부사카이 대다수는 숲 지역을 떠나려는 정부 관계자의 요구와 반격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정착지를 옮겨왔다. 정착지의 집들은 말레이의 현대적인 양식과 전통의 집모양이며 널빤지로 만들어져 길을 따

라 줄지어 있다. 나머지 북부사카이인들은 (다시 옮겨와서) 큰 강을 따라 우거지 숲 지역에서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이러한 공동부락은 나무 지주를 세워 땅 위에 지어져 있고 짙으로 이은 지붕에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가족들은 집 하부에서 길러진다. 그렇지만 북부사카이족들은 닭 종류는 애완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먹지 않고 그냥 기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육류 용으로 판매한다.

북부사카이 사회는 높은 집단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 마을 안에서 사냥 또는 낚시한 것들뿐만 아니라 돈, 의복, 그 밖의 다른 물건들도 서로 통용한다. 또한 동시에 그들은 자유도 마음껏 누리다. 부락민들 중 반 정도만 같은 곳에 머물러 지내며 나머지는 곳곳으

로 흩어져 산다. 테미아르인들에겐 "결혼하다"는 말이 없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쌍을 이루거나 동거하는 데 약간의 제약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동거하는 문제에 대한 공적인 이행을 통해 결혼이 성립되도록 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다. 결혼한 첫 달 동안 신혼부부는 아내의 공동부락에서 함께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공동주거 구역에서 자신의 거주처를 차지하기도 한다.

신앙

북부사카이는 그들만의 "심리요법" 종교로 잘 알려져 있어서 서쪽 나라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꿈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는 영혼과 대화하는 "세노이 꿈치료"를 고안한 것이다. 꿈을 꾸

사람이나 무아지경에 빠진 사람은 그의 마음, 몸, 사회적 관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과 상징적으로 융합되었다.

북부사카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저녁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모인 가운데 무대에 의해 행해지는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들은 합창, 춤,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때 불리는 여성들의 노래는 남아시아에서 합창곡으로 각광받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북부사카이는 세상에 접근하는 방식이 복잡하게 묶여있는 "영적혼돈"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들은 심자가의 유일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서방과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충돌 격화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에 따른 파문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서방과 중국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되면 홍콩의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고, 영국·캐나다·호주 등 연방방 외무장관들과 EU도 비판에 가세했다.

홍콩에서는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시위가 홍콩 보안법 논란을 계기로 다시 격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인 크리스 패튼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 "중국이 홍콩을 배신했다. 영국은 홍콩을 위해 싸워야 할 도덕적·경제적·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패튼은 일간 더타임스에 "홍콩의 자율성은 지난 1984년 영국과 중국의 공동 선언에 담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정신에 따라 보장돼 왔다'며 "그러나 중국은 홍콩보안법을 통해 이 선언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은 새로운 독재를 펼치고 있다"며 "영국은 중국이 일국양제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패튼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이양할 당시 총독을 역임했다.

패튼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치인 186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치권과 법, 기본적인 자유를 포괄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미니크 랫 영국 외무장관,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외무장관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홍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을 도입하려는 제안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은 홍콩에 대해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대변인을 통해 "중국이 홍콩의 인권과 자유, 고도의 자치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적 공백을 이유로 홍콩 보안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강경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에 더 많은 기도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교회 등 종교시설이 필수적인 장소이고 미국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며 주지사들을 향해 "지금 당장 문을 열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행이 여전한 가운데 확산 우려 장소로 여겨지는 종교시설의 즉각적 재개방을 주문한 데다 주지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엄포까지 놔 논란이 예상된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오늘 나는 예배당과 교회, 유대교 회당, 모스크(이슬람사원)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장소라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주지사는 주류점과 임신중절 병원이 필수적이라고 간주하면서 교회와 예배당은 제외했다"며 "이는 옳지 않다. 나는 이 부당함을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지사들은 이번 주말에 오픈을 하고, 이 중요한 신앙의 필수 장소들을 당장 열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들이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주지사들의 방침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미국에서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분여 간 간단한 입장 발표 후 기자들과 문답 없이 곧바로 퇴장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이날 종교시설 재개에 관한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는 시설을 정상화할 경우 비누와 손소독제 제공, 마스크 착용 권장, 일일 청소 등 주문과 함께 성경이나 찬송가 공유 제한, 결혼식이나 장례식 인원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종교시설을 통한 확산 사례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곧바로 연단에 오른 테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조차 발병이 많은 곳에서는 지금 당장 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을 다시 열 것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은 기독교, 특히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여기는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의 지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대선 때 스스로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유권자의 81%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밀려간 북한여성들 코로나병세로 굶주림"

중국 지린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통제 조치가 강화돼 인신매매로 팔려간 북한 여성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몰리고 있다고 한국 순교자의소리(VOM)가 20일 밝혔다. 지린성 방역당국은 최근 지린성 지린과 수란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일부 지역을 봉쇄했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에선 식량을 사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 북한 여성은 불법으로 인신매매로 신분증이 없다"며 "이들의 가장 큰 걱정은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굶주림"이라고 전했다. 한국VOM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은 중국 남서부에 팔려간다. 일을 할 수 없게 돼 버림받거나 학대를 피해 도망친 여성들은 신분증이 없어 음식을 살 수 없다. 선교사나 지원 단체가 도왔지만, 지역 봉쇄와 통제로 어려워졌다.

한국VOM은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질 것을 예상해 그동안 돌보던 북한 여성 13명과 가족에게 7개월 치 식량을 미리 제공했다. 중국 돈 1000위안(약 17만3000원)이면 한 가족이 7개월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다. 한국VOM은 지린성에 불법체류 중인 북한 여성이 더 많다고 보고 이들에게 음식과 물품을 나눠 주기 위한 성금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소송 낸 교회, 방화로 잿더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예배 제한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낸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교회가 방화로 따른 불로 전소했다고 22일 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화재는 전날 미시시피주 홀리스프링스(市)

의 한 교회에서 발생했다. 교회는 불타 잿더미가 됐고, 교회 주차장 바닥에는 "이제는 집에 있어야 할 것이다. 위선자들"이라는 낙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낙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와 손전등을 확보했고, 방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달 성서 연구 모임과 부활절 예배를 개최했다가 코로나19 행정명령과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교회는 같은 달 홀리스프링스시를 상대로 코로나19 예배 규제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교회 측 변호사는 소송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저지른 방화 사건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교회에 불을 지른 사람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무시...그래도 해변 간 사람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 10만명을 눈앞에 뒀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는 풍경이 현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현충일을 하루 앞둔 24일 미주리주 유명 관광지인 오자크 호수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 요트 클럽과 야외 바, 수영장 등은 사람으로 가득 찼다.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했고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았다.

SNS를 통해 퍼진 이날 오자크 호수 사진에는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몸을 맞대고 밀착해 음주와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세요'라는 안내문 아래에서 수십명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장면도 있다. 한 관광객이 찍은 영상에서는 "코로나19는 없다"는 외침이 들리기도 했다.

플로리다주 탬파 해변 역시 인파로 북적였다. 당국이 해변 주차장을 폐쇄하는 비상조치를 내릴 정도였다. 이날 해변에는 300여명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했다.

인근 데이토나 비치에서도 200여명의 젊은이가 길거리 파티를 열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일부는 차를 몰고 함부로 지폐를 뿌리는 난동을 피웠고,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부상을 입기까지 했다.

테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충일 연휴 야외 나들이 인파가 무척 걱정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러지 못할 상황이라면 마스크라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지속되는 전염병, 사람 마음도 바꾼다

(2면에서 계속)

한 연구는 사람들에게 손 소독제 옆에 서도록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보다 보수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같은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손 씻기를 생각하도록 하면 '자유분방한 성적 행동'을 더 쉽게 비난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곰 인형을 들고 자위하는 여성이나, 할머니의 침대에서 성관계하는 부부에 관대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질병의 위험은 사회집단을 가혹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 외에도 낯선 사람 즉, 외부인에

대한 불신도 더 키운다.

캐나다 맥길대학의 나쓰미 사와다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감염에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추가적인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매력적이거나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더 가혹했다. 이는 아마도 사람들이 얼굴이 못생겼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신호로 잘못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강화된 불신과 의심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을 대할 때 특정 반응을 형성하게 할 것이다. 살리에 의하면 이 반응은 불순응에 기인한 두려움에 의해 생겨난다. 과거에는 내가 속한 집단 밖 사람들은 특정 규범을 준수할 가능성이 적었다. 이로써 사람들은 외부인이 무의식적으로나 고의적으로 질병을 퍼트릴까 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오늘날 이는 편견과 외국인 혐오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한다.

실험에 참가한 아로에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이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게 행동면역체계가 보여주는 '미안함보다는 안전함이 낫다' 논리의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현대 다문화주의와 인종 다양성을 만나면서 전염병과 무관한 신호를 보고 잘못 해석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한다.

행동면역체계의 영향은 개인마다 다르다. 아로에는 "일부 사람들은 행동면역체계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해 많은 일을 잘 채워진 위험으로 인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평범한 사람보다 사회적 규범을 더 존중하고 외부인을 더 불신하는 경향이 크다. 질병 위험이 증가할수록 이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데이터는 아직 없다. 하지만 행동면역체계 이론은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토론토대학의 요엘 인바는 "행동면역체계가 사회적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견해를 바꾼다"고 주장한다. 그는 2014년 에볼라 팬데믹 때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몇 가지 증거들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국제 뉴스에 집착했고,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태도 역시 약간 안 좋아졌다. 그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사람들이 질병 위험에 따라 태도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대선이 다가온다. 그렇다면 행동면역체계가 후보자들이

나 특정 정당 지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살리는 행동면역체계가 작은 역할을 수행하리라 추측한다.

비록 행동면역체계가 국가적 차원의 선거에 영향을 못 미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개개인의 의견을 펼치거나 누군가의 행동을 판단할 때, 또는 다른 정당의 정책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실제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고대에서부터 형성된 행동면역체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유추해볼 수 있다.



#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98. 문영운(1880-1917)

문영운은 1880년 또는 1887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3년경에 도미한 것으로 보인다.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회 영수

1904년에 리버사이드의 파차과 애비뉴의 길과 코데트 스트리트 길이 만나는 코너에 한인 캠프가 설치되었다. 리버사이드 지도에는 한인 거주지 Korean Settlement라고 적었다. 바로 이 한인 거주지가 한인캠프다. 이 한인캠프는 1937년까지 지속하였다. 장대한 교수에 따르면 약 20개의 실용적인 목조건물은 모두 1층이었고, 커뮤니티 센터와 2, 3세대용 건물은 1.5층이었으며, 대부분 직사각형이었으나 3개의 건물은 정사각형이었고, 기역자 건물도 있었는데, 하나같이 각 방의 창문은 하나였고, 5층은 창문 가리개가 있었으며, 12층은 타일 굴뚝이 있었고, 2개의 건물에는 스토브 파이프가 있었지만 다른 2개의 건물은 굴뚝이 없었으며, 수도물이 나오지 않고 전기도 설치되지 않은 열악한 판자촌이었다.

문영운의 이름이 소개되기는 1913년 12월이다. 그가 새해 1914년 리버사이드 국민회 지방회 대의원에 선임되었다. 당시 회장에 김순학, 부회장에 이 일, 총무에 정지영, 학무원에 김중원, 법무원에 이 원, 구제원에 이성민이었다. 그는 새해 1월에 널시파에서 사망한 이인초의 장례식비를 위하여 의연금을 기부했고, 그해 4월에는 국민의무금을 낸 것만으로도 그의 민족사랑과 나라사랑을 엿보게 한다.

문영운은 1914년부터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회를 섬긴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본 교회 영수였다. 그는 민찬호 목사를 돕는 조사였고, 민찬호 목사는 재미한인을 위하여 미국복장로교가 파송한 내지선교사 라프린 목사의 지도하에 남가주와 중가주에 있는 재미한인을 선교하는 순행 목사였다. 당시 미국복장로교와 미국복간리교가 선교 지역 구분을 했고, 남가주와 중가주는 미국복장로교 선교구역이었다.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회는 파차

과 애비뉴 1158번지에 있었다. 오늘날의 4430 코멘스 스트리트다. 본 교회에서 주일예배와 주중예배 등 두 번의 예배가 있었다. 어느 해인지는 몰라도 교회간판에 소개된 대로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예배가 있었고, 목요일 오후 8시에 목요 예배가 있었다. 1914년 4월 리버사이드에 총 30여 명의 한인이 거주했다. 이들 중 박충섭의 주선으로 굴 따는 일을 하는 자가 많았고, 그 외에 여관에서 일하는 형제도 있었다. 그해 5월에 서간도 동포의 기황을 구출하기 위하여 의연금을 기증한 사람은 본 교회 교인일 것이다. 그 명단에는 정명애, 김번선, 태정근, 이성민, 박화준, 박병원, 박충섭, 홍재형, 김진행, 김순학, 이 일, 김

병환, 이학현, 김대일, 구정섭, 박호근, 장한조, 김태연, 이 원, 전기련, 윤병렬, 정지영 등 총 22명이다. 그해 4월에 4, 5 한인가정이 있었다고 하니 이틀만 해도 10명이 될 것이고, 어린이도 있었을 터이니 30여 명이 되겠다. 그해 3월 리버사이드에 재학한 학생 네 명이 이들 가정의 어린이일 것이다. 이들은 전경무가 중학교 1학년, 김태마가 중학교 3학년, 전경유가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김달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1914년 8월의 리버사이드 국민회 지방회 임원을 소개하면 회장에 김순학, 법무원에 구정섭, 학무원에 정지영, 서기는 이학현이었다. 이듬해 이학현이 회장에 선출되었고, 문영운은 서기로 선임되었다.

1914년 11월 30일 현재 미국복장로교 내지선교부 산하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클레몬트, 엠파드, 디뉴바 등 가주 한인장로교회의 통계에 따르면 총 세례교인수가 189명이었고, 1914년 한해에 44명이 증가하였는데 32명은 장년 세례자였고 12명은 유아 세례자였다. 그리고 16명이 원입 교인

이었다. 매 주일예배에 참석한 평균수는 132명이었으며 주일학교의 매 주일 평균 참석수는 76명이었다. 그리고 대학 재학생이 3명, 고등학교 재학생이 14명, 초등학교 재학생이 46명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현금한 총 현금액은 1,486달러 16센트였고, 교회 수리비는 20달러, 자선활동비로 지출한 비용이 358달러 90센트였으며, 내지 선교 사역을 위하여 266불을 지출했다. 위의 통계에서 리버사이드의 수치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신한민보에 따르면 1915년 리버사이드에는 교회로 인하여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었다고, 근래 그곳 교인의 열심히 교회가 더욱 발전하는 모양이라고 소문이 났다.

그해 3월 31일에 가주 동양인을 위한 미국복장로교 내지 선교사인 John H. Laughlin 선교사가 민찬호 목사와 더불어 리버사이드를 방문했다. 이에 본 교회는 이들을 위한 환영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많은 교인이 모인 가운데 라프린 목사는 중국 선교사 시절에 알았던 중국어로 찬송가를 불렀고, 여학생 송마티는 영어로 찬송을 불렀다.

문영운은 1915년 4월에 리버사이드의 인근 엠파드로 이주하게 되어 일반 교우들이 전별식을 마련하였다. 1915년 4월까지 영수로 재임하였는데 아마 1년간 본 한인교회를 섬긴 것으로 보인다. 그달에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회는 문영운의 후임으로

동을 주선하여 대부분의 한인 노동자들이 이 스트와트 부인의 농장에서 일했다. 할렐루야를 일동이 찬미함으로 개회하여 본 교회 백인 목사 알리슨이 기도하였고, 박 선 목사가 찬사를 하였으며, 민 부인이 찬미 독창을 하였고, 미국인 서전트가 설교하였으며, 강영승이 찬미 독창을 한 후 백인 목사 헌트가 설교하였고, 이요섭이 설교하였으며, 강영각이 나발을 분 후 스트와트 부인이 설교하였고, 임보배가 찬미 독창을 한 후 광림대 목사가 설교하였으며, 팩슨 쿡과 스트와리의 이중창에 이어서 이중화가 설교했고, 백인 파머 여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였으며, 음악대가 음악을 연주한 후 폐회했다. 그런데 이 대연에 문영운이 순서를 맡지 않았다.

문영운이 1915년 11월에 국민회 디뉴바 지방회 대의원으로 선임되었다는 광고가 있었으므로 그의 디뉴바에 주는 1915년 11월 이전이다. 디뉴바에는 한인장로교회가 있었으니 본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회 간판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회 영수... 국민회 참여 후원금 모금 본국친구 여비 마련차 엠파드 방문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

교회에 출석했을 것이다. 문영운은 늦어도 1915년 12월에 다시 리버사이드로 이주하였다. 그가 1916년 2월에 국민회 리버사이드 지방회 신년도 대의원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이다. 1916년 6월에 그가 국민 의무금을 냈으니 그의 나라 사랑은 계속되었다. 그 후 그가 멘티카로 이주했다. 그런데 1916년 12월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던 중 몸을 쉬고 있었는데 그달 19일 상오 9시경에 샌프란시스코 마켓트 거리에서 자동차에 치여 왼편 다리뼈에 중상을 입었다. 그래서 그곳 덕인 병원에 입원하여 1개월간 치료하였다.

리버사이드

문영운이 1917년 1월경에 다시 리버사이드로 이주하였다. 그해 3월 4일 국민회 리버사이드 지방회 통상회의에서 회장 정지영이 사임하여 문영운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해 3월 9일에 문영운이 본국으로부터 오는 친구의 여비를 위하여 엠파드를 방문했는데 리버사이드로 돌아가는 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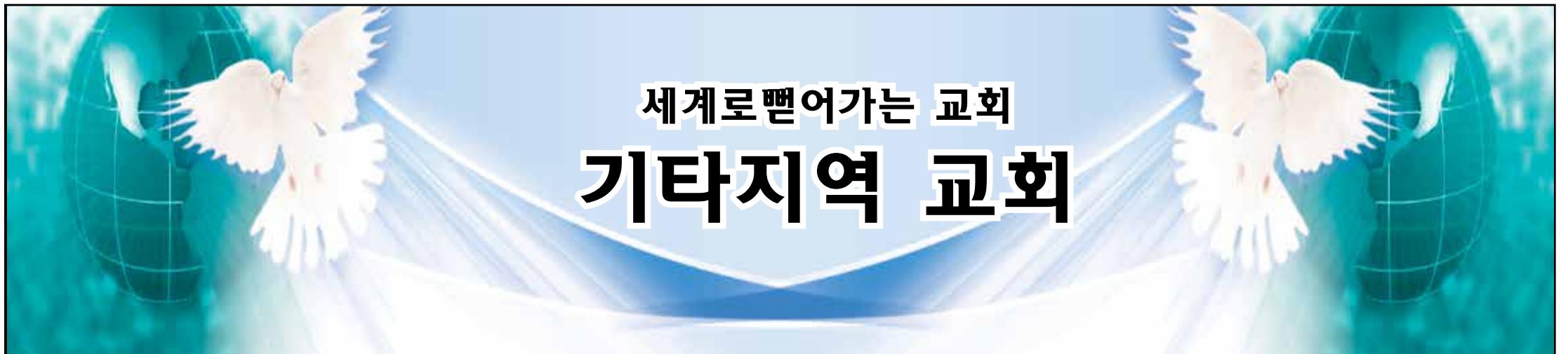
전임 총회장 강영소를 모셨다. 그들은 온타리오와 리버사이드 간에 운영하던 A.R.G. 버스 회사 소속 27세의 백인 알프레드 H. 존슨이 운전하는 5인승 발룬 버스의 뒷좌석에 탔다. 그날 오후 2시 45분에 온타리오를 떠나 온타리오 외곽에 이르러 비가 와서 버스 기사가 옆 커튼을 내렸고 그나마 후추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버스 기사가 서던퍼시픽 화차(기차)를 보는 순간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못한 채 철로 위에 올라가 기차와 맞부딪혀 기차가 버스를 밀고 얼마간 이동하는 과정에서 버스는 완전히 부서졌고, 승객 네 명이 모두 떨어졌다. 버스와 기차가 시속 15마일 이하였다고 한다.

문영운은 목뼈와 두개골이 단절되었고 말을 못 한 채 곧 세상을 떠났다. 강영소는 두부를 다졌으나 요령 중 상처가 없었고 움직일 수 있으니 의사는 염려없다고 단언하였다. 버스 기사는 얼굴과 앞이마와 코에 중상을 입었고, 다른 백인 승객인 온타리오 목장주인인 55세의 풀러는 심각하게 중상을 입어 온타리오 병원에 입원했다.

신한민보는 "문영운씨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으니 애절한 정을 금치 못하여 씨의 생명을 달하노라. 씨는 일찍이 그리스도 교리를 의지하여 마음이 참되고 품행이 단정한 좋은 친구라. 생평에 남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고로 신후의 장물이 없어도 오직 상천은 선인을 어찌 보사 착한 아들을 주어 현금 평양에 있어 가정을 이을 만한 학문을 배우나니 이것이 그 돌아가는 혼을 위로할 일이다"라고 적으면서 "소위 문명의 최악이 우리의 선한 사람을 해롭게 한 것은 길이 느낌을 마지 않노라"고 탄탄했다.

도산 안창호는 급보를 받고 민찬호와 강영승과 조갑석 등과 함께 온타리오에 와서 경무청의 심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강영승은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그 후 강영승은 엠파드 샌안톤 병원으로 입원하였다. 복미총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클레몬트 지방회에 훈시를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였고, 온타리오 경찰의 보고를 기다렸다. 그달 11일 하오 1시 30분에 가주 장로교 순행 목사 민찬호의 주례로 장례식을 마친 후 온타리오 매장지에 안장하였다.

국민회 리버사이드 지방회에서는 그달 25일 하오 8시 30분에 그가 영수로 섬겼던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회 예배당에서 고 문영운의 추도회를 거행했다. 국민회 리버사이드 지방회 회장 이성민의 주례로 남녀 동포 전부가 출석한 가운데 추도사, 찬가, 헌악,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그의 묘지는 벨리뷰 메모리얼 파크의 Section I, Lot 3, grave number 3이다. 그런데 그곳에 그의 묘비는 없다. damien.sohn@gmail.com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7635 Dean Martin Dr.,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urne Rd., Lansdale, PA 19057	<b>벤델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opedale, MA 01748	<b>살롱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원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d., Charlotte, NC 282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b>알칸사 제자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얼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얼린문교회</b>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li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jkc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18)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클린제일교회)

##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 (2)



4) 칼빈과 그의 사상을 따르는 불란서의 라무스신학의 종합

그의 신학은 칼빈과 라무스신학을 종합한 형태이다. 그에게 축복받는 삶이란 하나님의 지식과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윌리엄 에임스는 축복과 행복을 결합시켰고,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제 1번 문항이 된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퍼킨스의 명제는 유기된 사람들이 소위한 일시적인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갖는 구원하는 믿음을 대조하여 어떻게 사람이 유기되지 않고 택함 받았음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였다.

회가 경건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은 "황금사슬"의 첫 장에서부터 언급하고 있는 그의 신학의 정의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신학이란 영원한 복된 삶의 학문이다." 그의 신학이해도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삶 자체였다. 신학이 직접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칼빈의 신학을 계승하면서 교회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켄달(R. T. Kendall)은 퍼킨스의 구원론이 칼빈의 정직한 가르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지적한다. 칼빈의 선택여부에 대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였지만, 퍼킨스는 자신의 성화를 바라

요리문답 해설서를 저술하였는데, 그것이 영국에서 "기독교대요"로 번역되어 퍼킨스에게 영향을 미쳤다. 켄달은 우르시누스의 가설적 개념인 행위언약이 퍼킨스에게 차용된 셈이라고 지적한다.

우르시누스로부터 차용된 용어인 실천적 삼단논법은 믿음의 중심을 선택 양심에서 찾았고, 이 양심이 이 원리로 움직인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주관주의와 자기반성으로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3. 끼친 영향

설교에 기초를 놓았고, 이후 미국, 네덜란드, 유럽 등 서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비록 44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남겨 놓은 방대한 분량의 저서들은 이후 청교도 시대의 엄청난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또한 설교와 신학의 가르침을 통해 케임브리지 대학의 후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그의 제자가 된 청교도 학자로서 "신학의 정수"를 쓴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 등이 있고, 그의 설교와 신학적인 감화를 통해 많은 영향력 있는 청교도들, 곧 존 프레스턴(John Preston), 존 카튼(John Cotton), 윌리엄 구지(William Gouge),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 등이 대를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청교도 설교학의 교과서로 퍼킨스 이후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들을 배출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이 외에도 청교도 구원론의 기초가 된 "황금사슬", "목사의 소명", "소명론", "기독교 가정" 등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계속 후대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 가장 위대한 일

5월 가정의 달이다. 사람이 세상에 와서 한 일중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를 낳고 가족을 만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 그럼에도 가족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 속에서 웃고 울고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며 얽히고설킨 감정들을 풀지 못해 자기가 더 희생자라... 아픔을 주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네 가족들은... 그래서 급기야 밀바다까지 감정을 드러내며 이혼을 운운하기도 한다.

하루 2시간씩 운동을 한다는 친구 사모님은 나이 들어 배우자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내 몸이 아프지 않는 거라고... 죽을 각오로 운동을 한다. 맞는 말 같다. 사람이 같이 살아갈 때 상대에게 무엇을 잘해주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서로에게 폐가 되지 않고 불평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부부싸움도 그렇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것을 돌려주면 분명 그 싸움은 끝나질 않는다. 그것보다 조금만 덜 돌려주면 그 상처 덩어리가 점점 더 작게 오고 가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게 되리라.

그렇다. 질서가 잡힌 가족은 행복하다. 질서가 잡혔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과 사랑이 있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배려가 있는 것이라. 그것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냥 어찌처럼 살고 지난주처럼 생각하고 지난해처럼 행동해선 그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리라. 그보다는 각자의 삶이 점점 더 단단하고 좀 더 자유로워진 영혼으로 성숙해갈 때 가족의 질서는 저절로 잡혀가는 탁월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리라.

보면, 가족 간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은 단연 사춘기 자녀들을 둔 가족이다. 그렇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과 흥분이 있어서 부모의 눈에 차지 않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누가 터져도 기다려도 기다려주면 어느 날엔가 스스로 느끼는 미안함과 고마움은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영적 과정을 일으키리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죄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자들의 가슴에 꽂 부딪혔을 때 그들은 다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가족 간에 너무 익숙해져서 무디어진 서로의 고마움을 조금씩 깨우쳐주면 그들의 마음도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주는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다. 용기만 아는 것으로 살지 않고 모르는 세계로 나가보는 것이다. 마음을 넘으면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넓은 생각과 세계가 펼쳐져 있으리라. 그리고 그 길은 필경 인생을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닐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오늘 서로의 가슴앓이들을 알아주고 당신은 외롭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멋지고 사랑스럽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어깨를 감싸주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회복시키는 힘이 바로 오순절 다려방 성령의 힘이라.

changsamo1020@gmail.com

##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구분의 선구자...성화에 초점맞춰 영국 청교도 신학과 설교에 기초 놓고 후진에 큰 영향

엘리자베스 시대의 교회에서는 높이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의 이중예정론은 알미니우스(Alminius)와 예정론을 반대하는 네덜란드의 목사들에게 비판의 대상이었다.

### 5) 비판

퍼킨스의 예정교리에 대한 변하고 논증은 칼빈의 신학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가 서술한 구원의 서정과 구원의 확신에 내용도 칼빈의 신학을 계승한 것이다. 다만 퍼킨스는 그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화를 시킨 것이다. 이렇게 체계화를 한 목적은 사변적인 논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이유인 목회적 적용을 위한 것이었다. 개인을 위해서는 자기 점검을 하게 하고, 목회자에게는 회중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교회에 위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교

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그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유혹한 소명의 대상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양심에 집중시켰다. 또한 칼빈은 신앙의 대상과 확신의 근거를 일치시켰지만, 배자와 퍼킨스는 신앙의 대상(그리스도의 죽음)과 확신의 근거(성화)를 분리시켰다.

그는 작정의 순서인 타락전 예정설을 주장하면서, 그의 "황금사슬"에서 베즈의 견해를 받아들였고, 선택된 자나 유기된 자가 모두 아직 풀을 갖추지 않은 덩어리에서 예정되었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그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구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출신의 신학자인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그의 가장 큰 영향은 미국의 청교도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에게 준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제자였던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는 퍼킨스와 칼빈이 가진 지식중심의 신학에서 의지중심의 신학으로 이동하였다. 임종 시 퍼킨스를 방문한 새뮤얼 워드(Samuel Wards)는 그의 일기에서 '하나님은 그의 죽음이 대학에 돌이키기 힘든 손실이며 크나큰 심판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 왜냐하면, 그를 대신할 인물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라고 기록하였다. 존 코튼은 퍼킨스의 설교에 대해서 번민을 가졌고, 퍼킨스의 사망에 대해 은밀히 좋아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그는 16세기 후반 영국을 대표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영국 청교도의 아버지"로서 영국 청교도 신학과

윌리엄 퍼킨스가 당대에 끼친 영향은 토머스 굿윈(Thomas Goodwin)이 케임브리지에 갔을 때 "은 도시가 퍼킨스 사역이야기로 가득했다"는 말에서 능히 알 수 있다. 그는 로이드 존스(Martin Lloyd-Jones)가 언급한 것 같이 청교도를 이론적으로 다 듣고 정교하게 했으며, 영국 교회의 후기 종교개혁의 역사를 뒷받침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윌리엄 퍼킨스의 "설교의 기술"에서 설교의 모범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제임스 팩커(James I. Packer)는 퍼킨스의 "설교의 기술"을 청교도 설교의 원리로 공식화했고,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공적예배규칙서"에서 가장 훌륭하게 균형 잡힌 표현으로 발전했다고 평했다.

younsuklee@hot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교회

<h4>뉴욕망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 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크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p> <p>Tel. (718) 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새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 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 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모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 461-2810(Fax 없음), (917) 373-3411 46-40 162 St., #2,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토)</p> <p>www.pcpcny.org, Tel. (516) 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평일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 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 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amp;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 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선교사</h4>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변칙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 33-3507-4111, hanimkr@hot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ajara MEX(멕시코)</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진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 N.Y.: Tel. (718) 988-4400 Fax. (718) 988-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여승운 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지난 월요일에 뉴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내려졌던 행정명령이 제한적이거나 3주안에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상의 일들이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행정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비해서 상황적으로 열악한 변화가 따를 것이다. 이에 사람들이 변화된 열악한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용기 있는 도전들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하여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삶의 방식을 제시하였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약 4:13). 야고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해서 사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영역이 되었는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하나의 사치스러운 개념이 되는 것이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서는 안 된다.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기독교 신앙에 가져다줄 수 있는 해악은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표면적인 성과에 매여 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 교회는 표면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 숫자적으로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다. 숫자적으로 본다면 그 어느 나라의 교회들보다 한국 교회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적인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점이 매우 크다.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존 맥아더 목사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급격한 물결에 휩쓸려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본질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야고보가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들여보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약 4:15).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 ‘주의 뜻이면’이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저것을 하겠다는 것이 우선이 아님을 주목하라. 야고보가 말하는 이것과 저것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일과 본질이 아닌 표면적인 성과를 위주로 하는 일들이다. ‘주의 뜻이면’이라는 단서가 붙는 것은 이것저것을 행하는 기준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 어려운 이야기이다. 필자가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풍조 속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표면적인 성과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 구하고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가야 할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 가리키는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세상 풍조를 따라 넓은

문 넓은 길을 덤석 붙잡고 걸어가면 다음 세대에 남겨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유산이 전혀 남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이익과 표면적인 성과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인생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인식하는 불신앙의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실제 세계로서의 영원을 소망하지 않는다. 인생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아야 한다. 이번 COVID-19 사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되짚어 보고 본질로 복귀하고자 하는 진짜 spiritual movement 가 일어나기에 너무나 좋은 골든타임이다. COVID-19 이후의 회복을 단순히 예배당 예배출석률을 높이는 정도의 전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번 기회에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본질로의 회복은 그 중심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이다. 본질로의 회복을 위해 가는 도중에 만나는 여러 가지 고충들과 어려움들 때

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고충들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본질로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당신 자신의 뜻을 복종하여 따를 때 최고의 선을 만나게 되고, 최고의 영광을 만나게 되고, 최고의 만족을 만나게 되고,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토록 화려했던 사람들의 공적도 사라지고 부모 사라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세워갔던 본질만이 고스란히 남게 될 것이다. 필자가 2000년 겨울 어느 새벽에 쓰러지면서 이것이 생애 마지막 막이구나 하는 포기가 찾아오는 짧은 순간에 남는 것은 제 옆에 있던 아내도 아니었고 두 자녀도 아니었다. 오직 필자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 쌓아왔던 일대일 관계만이 고스란히 남았다. 그렇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쌓아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가게 하는 통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언제나 그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듣고 갈망하는 것이다. newsong6364@gmail.com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4)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5) 제임스 1세 시대의 교회 개혁 좌절 (挫折, Frustration) 스코틀랜드에서 칼빈주의 교리들의 배경 하에 자란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James I, 1603-1625)라는 칭호로 영국 왕위에 오르게 되어 청교도들에게 교회개혁의 큰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왜냐하면 영국 국왕이 된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서 이미 존 나스에 의하여 1560년에 장로교를 국교로 삼음으로써 종교개혁이 완성된 장로교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임스 1세는 카트리이트가 옥중에 있을 때 그의 석방을 위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편지를 쓸 정도로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신학에 있어서도 칼비니스트로 알려졌으며 1581년 청교도의 입장을 지지하는 소극적 고백(The Negative Confession)에 서명하였다(배한국, 미국 청교도의 사상의 기원과 변천, p.67). 영국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1,000여 명의 청교도들은 교황의 누더기라고 불리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잔재를 제거하는 개혁을 이룰 것을 청원하는 ‘1천인의 청원’(Millenary Petition)을 제임스 1세에게 제출한다.

턴 코트(Hampton Court)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그는 성직자의 이중직을 폐지할 것과 목사의 학식수준을 높이는 문제, 그리고 공동기도서와 요리문답서를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했지만 교회정치 개혁에는 반대했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왕의 지배를 인정하는 감독주의가 공화정을 주장하는 장로주의로 대체된다면 왕권도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제임스 1세는 장로파의 성직주의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상기하면서 “주교 없이 는 왕도 없다”(no bishop, no king)는 유명한 한 마디를 함으로써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장로교인들과 청교도들에 대한 그의 반감은 그의 통치 내내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그들로 하여금 내 말에 따르게 할 것이다.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을 이 땅

나아가 카톨릭교회의 장식과 의식을 다시 사용하도록 환원시켰다. 이렇게 영국교회 안에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고민하던 소수의 분리주의 청교도들이 잉글랜드의 스크루비(Scrooby) 출신들이 1607년 예로프의 자유를 찾아 네덜

할 수 있는 오락을 다룬 제임스의 오락서(Books of Sports)를 예배 시 강단에서 의무적으로 읽도록 한 것이 주일 성수할 것을 주장하는 청교도들에게는 심한 모욕이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레이든(Leiden)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thorized Version) 성경 발간을 후원한 것이다. 영국인들의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왕실 주도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케 한다. 그것이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사용되었다고 하는 킹 제임스성경(King James Version Bible, Authorized Version)이다 (Baker, A Summary of Christian History, p.251).

6) 찰스 1세와 크롬웰(Oliver Cromwell)의 청교도 혁명 (Puritan Revolution)

1625년 제임스의 아들 찰스 1세(Charles 1, 1625-1649)가 왕위에 오르자 청교도들은 더욱 심한 압박을 받게 된다. 찰스 1세는 로마 카톨릭교도인 프랑스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영국 의회 사이에 썩기를 박는다. 찰스 1세는 윌리엄 로우드(William Loud)를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 대대적인 청교도 탄압을 전개한다. 로우드는 알미니우스주의(Arminianism)자로 구원 사역에서 인간의 능력이 중요함을 역설하였고 왕권과 주교직의 신적인 기원을 주장하고 성찬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는 등, 성공회 정책을 폈으며 의식적인 예배를 추구했

자(煽動者 Sower of Sedition)라는 말의 머리글자인 S. S 등의 문자를 불에 달군 인두로 청교도의 얼굴에 새겼고, 귀를 베거나 처형하였다(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p.25).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를 개혁할 수도, 영국에 남아 있을 수도 없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국 이 같은 엄청난 박해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1629년과 1640년 사이에 약 2만여 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뉴잉글랜드로 떠났다(Erroll Hulse, 청교도들은 누구인가, pp.62-63). 1628년, 존 윈스롭(John Winthrop)을 중심으로 신대륙으로 이민을 계획하였고 1630년에 이민을 시작하여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언덕 위에 도시를 세웠다. 이 뒤를 따라 뉴잉글랜드의 영적 기조를 놓은 존 코튼(John Cotton)과 토마스 셰퍼드(Thomas Shepard), 코네티컷을 건설한 토마스 후커, 인디언의 사도라 불리는 존 엘리엇(John Eliot) 등 많은 청교도들이 이민을 하면서 신대륙은 청교도의 중심지가 되었다(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pp.25-26). 찰스 1세는 1637년 고향인 스코틀랜드 국교인 장로교를 없애고 감독교회를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인 로우드(Loud)에게 공동기도예식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Edinburgh)에 있는 성 자일스(St. Giles)에서 감독식 예배를 강행했다. 이로 말미암아 강력한 폭동이 일어났다. 이 반기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서정원, 청교도 신학과 신앙, p.37).

제임스 1세는 흥정역성정 발간 후원했으나 감독주의제도 선호 찰스 처형한 크롬웰은 집권 후 더 나쁜 ‘군사독재’ 평가 받아

그러나 청교도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임스 6세(제임스 1세)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감독주의 제도를 선호했다. 그는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을 신봉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교회의 수장이라는 신조를 가진 성공회 감독정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1620년에 종교와 시민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난 청교도들이 오늘 날의 미국을 건설하게 된 모체가 되었다(서정원, 청교도 신학과 신앙, p.36). 그 청원서에 의해 1604년에 제임스 1세가 햄

에서 몰아내든가 그보다 더 나쁜 일을 행할 것이다”(제프리 헨거스, 교회사를 빛낸 거인들, p.191)고 위협을 가하며 영국성공회에 순응할 것과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다. 그러나 약 2천명의 성직자들은 이를 거절한다. 그 중 3백여명 가량은 성직을 떠났고 나머지는 감옥에 투옥된다. 1604년, 윌시프트가 죽은 후 대주교에 임명된 리처드뱅크 로프트(Richard Bancroft)는 햄튼의 결정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고등 종교법원을 열어 청교도에 대한 박해를 강화했고(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p.22), 더

란드로 망명한다. 제임스 1세는 청교도들을 대적하는 오락포고령(Declaration of sports, 1618년) 등 일련의 법령들을 발표하면서 참된 교회를 세우려는 청교도들을 몰아내고자 힘을 쏟았다(서정원, 청교도 신학과 신앙, p.36). 즉, 양궁을 비롯한 일부 종목의 스포츠 활동은 주일에도 허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제임스 1세와 청교도 진영 사이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제임스 1세의 아들인 찰스 1세가 1633년에 ‘스포츠 선언’을 재천명하기도 하였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일요일에 허용

고 초대교회의 생활과 가까운 삶을 산다. 그러나 네덜란드 생활은 비참했다. 영국에서 잠시 돌아왔으나 제임스 1세의 폭정이 점점 더 심해지자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으로 떠날 계획을 세운다. 마침내 그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케이프 코드(Cape Cod Bay)만의 연안에 도착하여 플리머스 식민지를 건설했다. 이들이 소위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이다(배한국, 미국 청교도의 사상의 기원과 변천, p.68). 제임스 1세의 종교사적 큰 공적은 1611년의 흥정역(Au-

다. 찰스 1세에 의하여 고교회(High Church) 경향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런 고교회 정책으로 영국교회는 로마카톨릭교회와 거의 다름이 없게 된다. 이러한 반 종교개혁운동에 대하여 청교도들이 반발하자 로우드는 그들을 고등 종교법원에 소환하여 청교도 신앙을 포기하는 자는 살려주었지만, 고집하는 자들은 혹독하게 박해하였다. 심문과 박해를 하기 위해 악명 높은 성실청(Star Chamber)이라는 법정을 사용하였다. 선동적인 중상자(中傷者, Seditious Libeller)라는 말에 머리글자인 S. L, 또는 선동

자(煽動者 Sower of Sedition)라는 말의 머리글자인 S. S 등의 문자를 불에 달군 인두로 청교도의 얼굴에 새겼고, 귀를 베거나 처형하였다(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p.25).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를 개혁할 수도, 영국에 남아 있을 수도 없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국 이 같은 엄청난 박해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1629년과 1640년 사이에 약 2만여 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뉴잉글랜드로 떠났다(Erroll Hulse, 청교도들은 누구인가, pp.62-63). 1628년, 존 윈스롭(John Winthrop)을 중심으로 신대륙으로 이민을 계획하였고 1630년에 이민을 시작하여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언덕 위에 도시를 세웠다. 이 뒤를 따라 뉴잉글랜드의 영적 기조를 놓은 존 코튼(John Cotton)과 토마스 셰퍼드(Thomas Shepard), 코네티컷을 건설한 토마스 후커, 인디언의 사도라 불리는 존 엘리엇(John Eliot) 등 많은 청교도들이 이민을 하면서 신대륙은 청교도의 중심지가 되었다(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pp.25-26). 찰스 1세는 1637년 고향인 스코틀랜드 국교인 장로교를 없애고 감독교회를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인 로우드(Loud)에게 공동기도예식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Edinburgh)에 있는 성 자일스(St. Giles)에서 감독식 예배를 강행했다. 이로 말미암아 강력한 폭동이 일어났다. 이 반기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서정원, 청교도 신학과 신앙, p.37).

kimjoyh@gmail.com





# 원로칼럼

## 개혁교회 전통에서 본 교회와 국가의 관계(중)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칼빈주의는 인간의 죄 때문에 국가제도도 정치도 필요하게 되었음을 역설했다. 또한 카이퍼는 사람을 지배하는 권위는 사람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다수가 득세하더라도 다수가 반드시 옳다 할 수 없고, 비록 소수라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칼빈주의자로서 카이퍼의 입장은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정치제제이지만 그렇다고 다수가 항상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 카이퍼는 말하기를 '정부란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도구'(De overheid een instrument van gemeene gratie)로 보았다(A. Kuyper, Het Calvinisme, Amsterdam, 1898, p.74). 카이퍼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역을 특별한총이라면 정부,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등의 모든 영역은 일반은총(gemeene gratie)으로 보았다. 일반은총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칼빈(J. Calvin)의 "사무엘서 주석"을 인용하면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방법이 최선임을 인정했다. 즉 투표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주주의 방법은 칼빈과 낙스와 델빌, 언약도의 신앙을 따르는 장로교회의 전통이었다. 장로교회는 목사를 청빙할 때도, 장로를 선출할 때도 투표를 통해서이다. 이것이 한국장로교회 100년 동안의 전통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1912년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민주제도를 실행했다.

카이퍼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기독교 정치'를 구현하는 가장 큰 이유는 1880년에 화란의 뿌리아대학(Vrije Universiteit)의 총장취임연설에서 그가 주장한 이른바 영역주권(Souvereniteit in Eegen Kring)사상이다. '영역주권 사상'이란 우주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소유이나, 그 권력이 땅 위에 구체화 될 때는 한 사람 또 한 기관에 독점될 수 없고, 삶의 모든 영역에 분산되어 행사된다는 주장이다.

본래 영역이란 화란말로 Kring이라 하는데 이것은 원이란 뜻이다(영어로 Sphere는 적절한 번역이 될 수 없다). 원이 하나이면 중심이 하나이고, 원이 열 개면 중심도 열 개이다. 인간의

### 교회는 국가와 분리된 것 아니고 구분될 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은 작동돼

모든 영역 곧 원에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이 사상은 본래 19세기 독일의 법철학자 스탈(Dr. F. J. Stahl 1802-1855)이 주장하여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로 영역주권을 제시했다. 그 후 앞서 말한 대로 카이퍼의 스승이자 화란 수상을 지냈던 칼빈주의 정치가 흐른 반 프린스태에게 접목되고, 이것이 다시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크게 꽃 피어 교회와 국가에 대한 칼빈주의적 정치 이론과 칼빈주의적 세계관이 되었다.

그런데 영역주권에 대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본적 전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주권'(De absolute Souvereiniteit Gods)과 '그리스도의 왕권'(Christus Koningschap)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은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률,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 후 화란의 법철학자이자 칼빈주의 사상의 부동의 대 학자인 헤르만 도예베르트(Dr. Herman Dooyeweerd) 박사에게 꽃 피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와 분리된 것 아니고 구분될 뿐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당 울타리 안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주의 세계관은 하나님 주권은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칼빈주의 곧 성경적 세계관이다. 성직자도 정치에 뜻이 있다면 그 성직을 사임하고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기독교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기독교 정당을 갖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에도 기독교당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란 말을 꼭 붙이지 않고, 기독교적 또는 성경적 세계관을 나라를 이끈다는 뜻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기독교정당은 '십자가당'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끌던 정당도 ARP(Anti-Revolutionary party)라고 했다. 즉 '반혁명당'이란 한국 사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볼 때 불란서 혁명은 매우 인본주의적이며 반기독교적이기에 불란서 혁명식의 혁명은 반대한다는 뜻이다. 불란서 혁명은 공산주의혁명과 연결된다는 사상이었다. 그래서 이 정당 이름을 채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47년에 김화식 목사에 의해서 '기독교자유당'에 탄생되었으나 공산당에 의해서 발기인 모두가 체포되고 김화식 목사 등은 총살형을 당했다. 김일성과 공산당은 기독교 정당을 반동으로 여기고 철폐를 내린 것이다. 그 지음에 감리교는 '기독교민주당'을, 그리고 한경직 목사는 '기독교사회당'을 시도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이들은 모두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라를 세우려는 충정에서 시작했으나 매우 아마추어적이었다.

그러나 1948년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세울 때 이윤영의 원으로 기도하게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마도 그가 프린스턴 대학교 시절 1년간 신학공부를 할 때, 당시 프린스턴 학교의 분위기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이 대체였다. 그래서 이승만의 꿈은 나라가 독립될 때 기독교국을 꿈꾸어왔을 것이다. skc0727@yahoo.com

# 미자립교회 렌트비 지원위해

## 원하트 '투모로우 투게더' 온라인 위십콘서트

원하트 투모로우 투게더 온라인 위십 콘서트가 15일 오후 7시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 렌트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하트 투모로우 투게더 온라인 위십 콘서트 유튜브 실행장면

원하트미니스트리 사역소개영상으로 시작된 콘서트는 정신호 목사, 김브라이언, 강찬 목사, 원하트위십팀이 나서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찬양사역자들이 찬양할 때 유튜브 대화창에서는 참석자들이 소감을 말하며 은혜를 함께 나눴다.

데이빗 리 형제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마민지 자매는 "멀리 있지만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청년들의 예배를 감동하는 마음을 투영했다.

온라인 예배는 남가주는 물론 미전역, 그리고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전수정 자매는 "이렇게 한국에서도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했으며 공민 일본선교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고창현 목사(토랜스제 일장로교회)는 '예배를 부탁해'(렘7:1-7)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고창현 목사는 "오늘날 우리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과감 없이 전하며 공문화하는 선지자적 메시지가 사라졌으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제사장적 메시지를 사람들이 사모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고 목사는 "코비드19이 주는 고민은 일상에 대한 예배다. 가정에서 자녀양육과 참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게 됐다. 진짜 예배는 일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자의 증거는 교회당 바깥에서의 삶이다. 진짜 예배를 교회당 안에 가두고 교회생활과 일상을 분리시켰다. 이민 사회와 한국사회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온갖 불의와 부정한 일들을 행한다. 성전 안의 종교생활이 아닌 삶속에서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순종의 삶으로 온전한 예배 회복을 하자"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뉴욕교협, 뉴저지교협 공지사항

뉴욕주 교회 예배와 모임이 5월 21일부터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뉴욕교협이 회원교회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렸다.

참석인원은 10명까지 가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6ft(약 2m),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인(drive in) 방식도 제한적이지 않게 가능하게 됐다.

주일예배와 메모리얼데이 기념도 10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하니 각 교회 형편에 맞게 현장 예배를 준비해도 좋을 것 같다고 알렸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히 수그러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 회

복을 위해 완화조치를 하는 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뉴욕주도 단계별 해제를 하고 있다.

한편 뉴저지교협은 코비드-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후원한다고 밝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나 혹은 후원하려는 교회 및 단체, 개인들의 연락도 바라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https://forms.gle/FpF2yzAbSqB2xiVq5>로 가서 기입 제출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회장 장동신 목사(201-787-1422), 총무 육민호 목사(201-600-8590)로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 한국교회, 뉴욕·뉴저지·LA 한인사회에 15만불 지원

미국에서 한인회회를 했던 목사들이 답임을 맡고 있는 한국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뉴저지, LA 한인들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15만 달러를 쾌척했다.

기금을 보낸 한국교회는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 서울영락교회(김운성 목사), 소망교회(김경진 목사), 주안교회(주승중 목사), 창동영광교회(황성은 목사), 새문안교회(이상학 목사), 잠실교회(임형천 목사) 등 7개 교회들이다.

뉴저지에는 KCC 한인동포회관(회장 류은주)에 5만 달러를 전달했으며 5월 20일 전달식에서 뉴저지초대교회(박형은 목사)도 1만 달러를 더해 총 6만 달러를 전달했다. 뉴욕은 같은 날 뉴욕한인회에게 전달했다.

KCC 한인동포회관 류은주 회장은 "성금을 보낸 교회들의 뜻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저지 한인들 중 서류 미비 등으로 미국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 당 500달러씩 총 120가정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5월말까지 언론과 SNS, 각종 기관과 단체들을 통해 홍보한 후 6월 1일부터 홈페이지(kccus.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이메일(info@kccus.org)로 보내면 공정한 심사 및 면담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 미주한인 인종차별 피해사례보고 2위

## 남가주 코리아타운 11개 한인단체 대표 공동성명 발표

한미연합회를 비롯한 11개 남가주 코리아타운 한인단체 대표들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관련해 증가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현상 사례, 증오범죄와 편견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로스앤젤레스 시장에게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주한인들의 인종차별 피해 사례보고 수는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한미연합회(KAC), 앤더슨명거패밀리YMCA, 아태여성보호센터(CPAF), FACE(Faith and Community Empowerment·구 KCCD),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로스앤젤레스 한인회(KAFLA), 한인가정상담소(KFAM),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한미박물관(Korean American National Museum),

민족학교(KRC) 그리고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의 총 11개 단체다.

이들 단체는 우리 커뮤니티가 직면하고 있는 인종차별과 증오 현상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강력히 맞서고 계속 피해사례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폭행, 괴롭힘, 모욕, 협박 또는 증오범죄를 당했거나 목격 한 사람은 증오범죄 사건보고서(링크: Hate Incident Report Form)를 작성하거나, 2-1-1로 전화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3PCON(A3PCON Korean-language hate reporting)에서도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한국어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전화신고 또는 신고내용 작성할 때 한국어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인단체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 교사 사서 학부모 엄선 아동영어서적 추천 사이트

## '베스트 키즈 북스' 한국어 버전 런칭

플로리다 주 더니든 '베스트 키즈 북스'(Best Kids' Books) 팀은 온라인에서 고품질 아동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지난 4월 29일 개설하고 한국어버전 런칭도 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교사, 사서, 부모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아동서적들을 훑어 좋은 책들을 직접 선정해서 소개한다. 주제와 장르별로 각 5권의 책을 엄중히 선정, 큐레이션을 통해 권장도서를 제공한다.

베스트 키즈 북스의 창립자 캐서린 허버드는 "우리의 임무는 양질의 아동문학을 읽도록 장려하고,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책을 더 많이 제공해 아이들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베스트 키즈 북스는 미국과 전 세계 어린이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책 컬렉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 3-10세 아동용 그림책과 영유아용 보드북이 포함돼

있으며 곧 글자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책, 챗봇 북 및 기타 장르로 확대될 예정이다.

베스트 키즈 북스 웹사이트에서는 위시리스트에 가족도서 목록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위시리스트는 이메일, 왓츠앱, 페이스북 또는 다른 SNS를 통해 친구나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다. 위시리스트를 받은 사람은 아이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바로 이 위시리스트에서 주문을 할 수 있다.

베스트 키즈 북스 수익금의 5%는 미국 및 전 세계 어린이자선단체 및 문맹퇴치운동에 사용된다. 베스트 키즈 북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BestKidsBooks.com](http://www.BestKidsBooks.com)에서 찾을 수 있으며, 추가 정보는 창립자 캐서린 허버드에게 이메일 [info@bestkidsbooks.com](mailto:info@bestkidsbooks.com)로 문의할 수 있다.

(기사제공: 베스트 키즈 북스)

# 한인 가정폭력전문가 24명 배출

## 한인가정상담소, 40시간 교육과정 온라인수업 완료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한인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을 종교지도자 24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전문 종교지도자 배출했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인종교지도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과정 1, 2회차는 한인가정상담소 강의실에서 대면수업으로 진행했으나,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나머지 강의는 실시간 화상수업을 통해 이뤄졌다.

수업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한인종교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40시간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와 영향 △청소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책 및 평가 △이민법 및 기소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카니정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예방을 위해 한인 종교지도자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처음으로 시도된 온라인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참석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한인가정상담소는 40시간 교육과정은 물론 1박2일 목회자수련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한인 기독교 사역자들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하고 있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 소망소사이어티, 2개 단체에 총5천불 전달

## 독지가 후원금 받아...차드에도 3천불 송금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가치로 삼고 활동하는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최근 실비치 시니어단체에 거주하는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이 독자로 부터 받은 후원금 살롱 장애인교회 박모세 목사에게 전달하고있다

본인들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전달할 독지가의 뜻에 따라 소망소사이어티는 장애사역을 하고 있는 살롱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와 미혼모 및 대포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무지개선교회(대표 이지혜 목사), 두 곳에 각각 2,500달러씩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소망소사이어티가 생명살리기 운

동을 전개하고 있는 아프리카 차드에 활치훈 해외협력부장이 기부한 후원금과 함께 3천 달러를 송금했다.

한편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마스크를 제공한 UEC와 미주북음방송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월말부터 노약자들을 중심으로 360명에게 1,300개의 마스크를 우송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 코로나19와 교회 [2] 퀸즈장로교회 기획위원회

4.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예배는 다시금 부흥될 것이다.

전염병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또한 전염의 위험 때문에 예배 처소에 모이지 않는 성도를 성급하게 불신앙으로 정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마4:6). 역병의 유행은 종말의 징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이웃들에게 필요한 예방 물품들을 공급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성경은 신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안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읍(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렘29:7). 세상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나라를 위한 성도의 의무이다(딤후2:1-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4).

세상의 평안을 위해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시민으로서 협력해야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평안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다할 기회를 얻고(렘29:7, 딤후2:2),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복을 전도가 더욱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7:14)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은 하나님 백성의 죄로 말미암음이고, 재앙으로부터 회복되는 길도 하나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길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할당없는 은혜들을 망각하고 스스로 높아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재앙이 임한 것은 아닌지(행12:23)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며,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킨 종교적 위선과 세속적 욕망으로부터(막8:15) 속히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로 받아야 한다.

코로나19의 대재앙 앞에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욥2:12-14)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 교회와 예배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글의 일부는 고려신학대학원(Korea Theological Seminary) 교수회에서 작성한 글을 참조한 것입니다.]

## 코로나19와 환경

2020년 4월 30일 기준, 212

개국에서 하루 8만명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매일만명이 죽어가며, 전체 확진자는 321만명, 누적 사망자는 23만명이나 된다. 온 세계가 멈추어 섰다.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없고, 가고 싶은 대로 다닐 수도 없고, 맘 놓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얼어붙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 상황은 앞으로 2년은 더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한다. 아직도 인류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두렵고 답답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 코로나19의 역설

일상이 멈춘 자리에는 두려움과 답답함, 아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람이 멈추니 자연이 되살아났다. 2007년 지구 온도 상승이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임을 밝힌 후, 2015년에 전 세계가 합의한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산화 이산화탄소 2도 이내)는 그 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세상이 멈추니 덩달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배출량은 1/4로 줄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자동차도 비행기도 운항이 줄면서, 공업 지역을 뒤덮고 있던 유해 가스 구름이 걷혀 하늘이 맑아졌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관광객이 감소해 수상 택시 곤돌라의 운항이 줄면서 강물이 맑아졌다. 인도의 하늘이 맑아져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이 드러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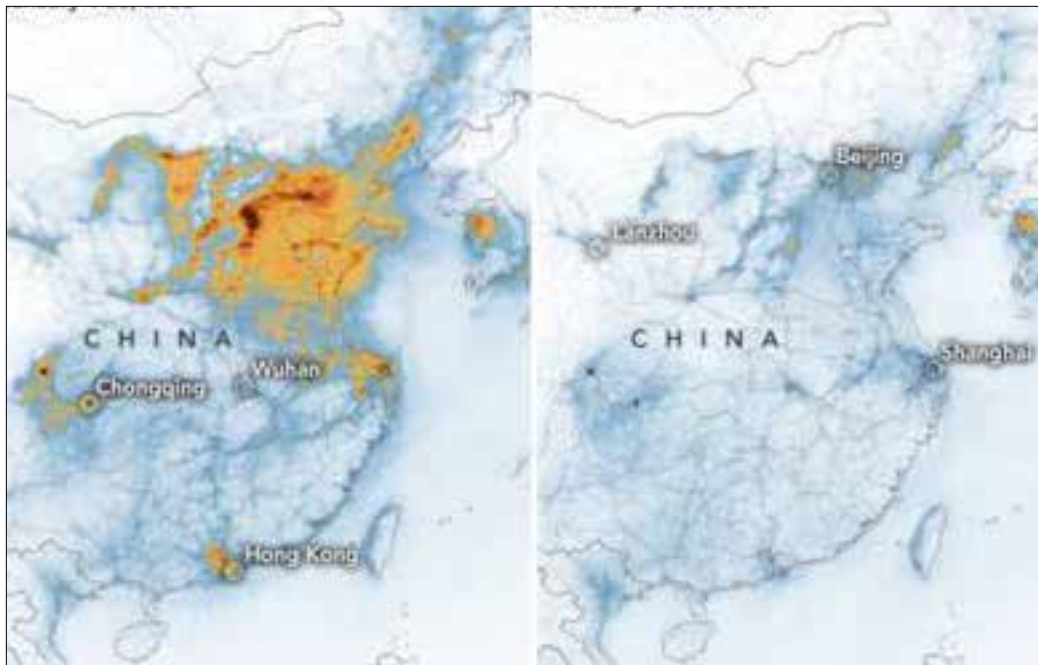
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길 기대해 본다.

## 인류의 전염병과 지구의 건강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1일에 코로나19에 대해 전 지구적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다. 홍콩독감(1968년)과 신종인플루엔자(2009년)에 이어 세 번째 선언이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새롭고 질병이 아니다. 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종의 벽을 넘어 인간을 위협하는 데에는 분명한 원인 제공자가 있다. 대개 박쥐를 주목하지만, 아니다.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 인수공통감염병 대부분이 그렇듯, 인간이 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해 동물들과 그들이 사는 세상을 건드림으로써 전파된 바

목소리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지구를 회복 가능한 상태로 지킬 시간은 겨우 8-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치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https://news.who.int/article/23028237> 참조). 이 계획을 시급히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이 지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한편, 인간이 원인이 된 동물 서식지 파괴와 기후 변화로 대규모의 생물 종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유엔의 보고



2020년 1월(좌)과 2월(우)을 비교한 중국 위성사진(출처: NASA)

## ‘지구돌봄캠페인’으로 치유자이자 부활의 주님 만나는 기쁨 누리도록 온라인 공간이 교회사역의 적절 혹은 부적절한 장소로 생각지 말아야

다. 인적이 끊긴 해변에는 멸종 위기 종인 바다거북들이 산란을 위해 수천 마리를 찾아와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일주일하 하루, 7년에 한 해, 50년에 한 번은 사람도 땅(자연)도 쉬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강제로 쉬게 하셨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2020년은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의 멈춤이 지구에게 쉬를 가져다준 ‘지구 안식년’으로 기억될 것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후 온실가스 배출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증가할지도 모른다. 강제적 쉬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코로나19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공기, 같은 물을 마시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의식하게 된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가 지구 평균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해 흘려들던 이들도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전염병으로 겪게 될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긴급히 내려진 조치에 잘 따랐다. 이런걸 보면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지구를 보면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적절한 삶의 양식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과 창조물 모두의 풍성한 삶을 추

이러스가 일으킨 질병이다.

여기에 또한 기후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상 기후가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살 공간을 잃은 야생동물이 인간 거주지나 목축지로 이동하여 사람들의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 80년간 유행한 전염병의 70%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라고 한다(그린피스, “과학자들의 경고, ‘기후변화가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 2020.2.25. 참조). 에이즈는 유인원, 조류 인플루엔자는 새, 신종플루는 돼지, 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왔다. 관련하여 인간에 의한 숲의 파괴도 바이러스의 전파를 부추기고 있다. 숲 안에는 인간이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바이러스가 있다. 늘 숲에 살던 야생동물에게는 별문제가 아니지만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수백에 없다. 에볼라, 에이즈, 사스, 뎅기, 지카 바이러스가 그 예다. 또한, 현재 산업화 이전대비 1.1도 상승한 지구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가면, 지구의 회복력이 상실되고 빙하가 다 녹게 되어 고대의 바이러스까지도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미뤄둔 기후 위기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바로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고 돌보는 길이다.

그런데 당면한 코로나19와 달리 기후위기는 아직도 미래의 일로 여겨지는 듯하다. 이미 수억의 사람들이 기후위기 대응요구를 맞았는 데도,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긴급한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한

사에 따르면 현재 전체 생물 종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295366/> 참조). 서식지 침해나 기후변동으로 종들이 서식지를 이동하면서 면역력이 없는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인류에게 일어나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중국은 야생동물에 대해 몇 가지 조치를 하게 되었다. 불법 야생동물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축이나 가금류로 간주되지 않는 야생동물 거래만이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야생동물을 먹는 것도 금지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공간인 아직 남아 있는 야생의 공간 숲을 보존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와 다른 생물 종들이 계속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지구가 우리에게 건네는 이와 같은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의 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두려움 안에서 위기를 마주하고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가능하고, 필요만큼 누리며 모두가 팔고루 누리게 해야겠다는 ‘자기선언’이 가능하다.

## 코로나19와 일회용 쓰레기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멈춤으로 지구가 되살아난 반면 일

회용 플라스틱 컵과 용기, 비닐봉지와 포장재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오고 있다. 생활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폐기물 배출량이 명절 때 배출하는 양보다도 많다고 한다. 수량도 수량이지만 그동안 애써서 이루어왔던 분리배출 습관이 흐트러지고 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가 되면서, 일회용 컵을 수년 안에 퇴출하기로 했던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였고, 그러자 식품업소와 커피전문점은 물론 시민들이 거둬쓰지 않고 일회용품 사용하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음식 및 택배로 인한 포장 쓰레기도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벅했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더구나 요즘 배출되고 있는 일회용품은 사용 후 깨끗하게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원자재 값이 떨어져 폐

을 시작해 보자. 지구가 아프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돌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으로 함께 묻는다면, 두려움과 불안함, 막연함에서 벗어나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자이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에 상처 입고 무서워 떨었던 고통의 기억을 나누며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살아볼 용기와 지혜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지구의 지속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 우리 안에 두려움을 사랑으로 견어 내고 부추겨진 욕망도 씻어낼 수 있는 길. 그 길은 코로나19의 상처를 안고, 기후변화와 종의 멸종이라는 위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고 행동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렸다.

## 온라인 예배의 순기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가 되면서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가속화되었다. 회사 업무 회의, 학교 수업, 인간관계도 모두 온라인 동영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화상 채팅서비스 ‘줌(Zoom)’이 이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줌(Zoom)은 더 이상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를 “주머세대”(Zoomer, 줌을 쓰는 세대)라고 부른다. 이런 상황에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당(오프라인)에 가지 못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직접 대면하지 못한 채 가정(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다. 미국 예일대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인 테레사 베르거(Teresa Berger)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사태를 마치 예견한 것처럼 적절한 때에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는 책을 내놓았다. 테레사 박사는 디지털 세상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 디지털 사역에 대한 5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1. 사역의 레퍼토리 확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특징은 예배, 소그룹 사역의 레퍼토리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에서 응용 프로그램 화면과 웹 내용을 표시하는 기술과 같은 기술 혁신 때문에 엄청난 거리를 가로질러 즉각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증강현실(AR)’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통합됨으로써, 사역의 ‘레퍼토리’가 지금보다 더 방대하게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건의 훈련인 기도생활을 할 때 그리 멀리 않은 미래에 오프라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인물의 이미지들을 혼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포켓몬고와 같은 AR 게임이 디지털로 매개되는 작은 포켓몬 괴물을 찾아 동네를 헤매게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디지털 시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예배의 강화된 레퍼토리 앞에서 향수병에 빠지기보다는 예배 자체의 매우 오래된 선택의 논리를 받아들여 이 논리를 디지털 문화와의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욱 유익할 것이다. (16면으로 계속)

지나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선별해 이익을 얻는 재활용업체들의 수익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다시 울지도 모른다. 처리할 양을 줄이려면 사용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 그리스도인, 코로나19의치유자

반복될 수 있다고는 하나, 코로나19는 결국 지나갈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다시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복귀할 것인가? 지구를 해치면서까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일삼는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구상에서 다른 창조물들과 함께 숨 쉬며 번영하기를 추구하는 변화된 삶을 추구할 것인가?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마5:4)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 보자. 우리가 입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지구의 안녕’을 물어보자. 우리뿐 아니라 지구 이웃이 입은 상처와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상처는 아물지 몰라도, 그 고통과 상처가 지구와 지구 생명들을 치유하는 원천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구가 보내는 신호에 둔감한 채 마냥 달렸으니, 이제 멈추어 삶을 성찰해 보자. 혼자 그런 성찰을 하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몇 사람이 모여 함께 ‘지구의 안녕’을 묻는 ‘지구돌봄캠페인’



## 지역과 교회 여건 고려해 시행

한교총,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방역준칙 따르며 두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캠페인을 지역 사회와 교회의 여건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확산 중인 시국을 고려한 조치다.

한교총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던 중에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국지적인 지역 감염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면서 "이에 캠페인을 준비 중인 전국교회에 감염병 확산을 막는 방역원칙을 준수하며 지역

과 교회의 여건을 감안해 시행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캠페인을 주관해 추진 중인 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전국 회원 교단 교회에 '교인 출석 목표치를 조정할 것'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여건을 감안할 것' '방역준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했다.

먼저 캠페인 당일 교회별로 80% 수준의 성도 출석률을 목표로 준비해오던 것을 수치적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별 교회의 장소, 방역 여건에 맞춰 준비해 달라고 했다. 또 일부 지역의 경우 여전히 지역

사회로 감염이 퍼지고 있는 만큼 지역 상황에 따라 날짜를 조정하는 등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했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지도해줄 것과 방역준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도 요청했다.

한교총은 "본 캠페인은 감염병 팬데믹(범유행) 상황에서 교회가 감염병 확산을 막으면서도 예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함을 반영한 '교회 행동'이라면서 "한국교회는 교회의 첫째 목적이자 교인들에게 영적 방어의 역할을 하는 '예배'의 새로운 실천모델을 찾아가고 있다. 방역 원칙을 준수하며 예배당 문을 열려는 것"이라고 캠페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이재서 총장, 징계조치 관련 입장 밝혀

총신대 재단이사회 이상원 교수 해임

이재서 총신대 총장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이승헌)가 강 의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상원 교수를 해임한 사안 등 교원 징계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입장문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할 총신대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교원징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학교를 대표하는 총장으로서 커다란 책임을 통감하며 이 일로 인해 상처 받은 교수, 학생 등 총신공동체의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교원 징계 조치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절차에 대한 양해를 요청했다. 이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최 대한 공정하게 해당사안을 심의해 대책위 자체 처분 외에 교원 1인에 대해서만 징계 청원을 했지만 법인이사회는 '학교 결정에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원 4명 모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징계위원회는 수개월간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해당사안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진행해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대책위원회의 판단과 달라 유감스럽지만 자체 조사와 법규에 따른 독립적인 판단이므로 학교는 절차에 따라 일단 그 결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총신의 모든 교수와 학생이 징계 결과를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후의 법적

인 절차를 통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이 동성에 이슈와 맞물려 오해와 비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이 총장은 "총신의 모든 교수들은 결코 동성을 지지하거나 용인하지 않으며 일관되고 확고하게 동일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경에 기초해 동성에 세력과 싸울 것이고

동성혼 및 차별금지법 등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지난 18일 교원징계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18일 이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이 교수의 강의 중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발언이 성희롱적이라고 성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총신대 총학생회장에 세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해 2차 피해를 유발한 점, 자신의 강의 및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했다.

## '이상원교수 해임결정 재고해달라'

총신대 신대원 교수 25인 입장 밝혀

총신대 신대원 교수 25인이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이승헌)가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상원 교수를 해임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입장문에서 "재단 이사회의 이 교수 해임결정으로 인해 총신대를 바라보는 교단 신하 교회와 성도들, 한국교회 전체의 우려 앞에서 총신대 신대원 교수로서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신대원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육의 목적을 되돌아본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교수가 지난 20여년 동안 수천명의 후학을 가르치며 보여준 신학의 교훈과 신앙의 귀감을 생각할 때 해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 교수가 학교에 기여한 업적과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 향후 신학 교육의 일관성을 고려해 이번 징계결정을 재

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혁신학의 본질과 지향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수들은 "우리가 토대로 삼고 있는 개혁신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본래의 모습과 남녀 양성 간의 바른 관계가 타락을 통해 완전히 부패하게 됐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왜곡된 모든 인식을 역시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대원 교수들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신학적 입장을 견지하며 교육해 왔다"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반은총의 방편들이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번 어려움을 통해 총신대가 바른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세계성령중양협의회 안준배 이사장은 "본 상은 해당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성령의 사람들에 시상하고자 제정됐다. 김진주 목사를 통해 발현된 1907년 성령운동을 계승해 한국교회 정체성을 세우며 기여하고자 상의 명칭을 홀리 스피리트 맨 메달리온(The Holy Spirit's Man Medallion)으로 정하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제정 취지를 말하였다.

제17회 홀리 스피리트 맨 메달리온 시상식은 2020년 6월 4일(목) 오후 5시 대학로 한국기독교성령센터 황희자 홀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메달과 상금 300만원을 수여한다.

(기사제공: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

인 양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세인들의 많은 지탄을 받아왔고, 사학은 사학대로 사학의 원래의 설립목적을 구현하기보다는 설립자나 설립재단의 이익창출에 악용되는 일이 빈번하므로 사학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곱

지 않다. 선교단체와 선교사들 역시 눈물어린 선교후원금으로 선교지에 설립한 학교나 기관 혹은 재산들을 선교의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 선교지에서 오만하게 주인 행세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많이 목도하게 된다.

작금의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의 비행을 보면서 그들을 단

## 난민제도 악용 이단 전능신교 주의보

"신천지처럼 몰래 교회 침투" ...대대적 포교활동

중국발 사이비종교인 소위 '전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교주 양향빈)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과 유사한 수법으로 기성 교회에 침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가 사교(邪教)로 규정한 전능신교는 난민 제도를 악용해 국내 유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20일 "신천지처럼 전능신교도 '내부 정탐꾼'이란 이들을 몰래 기성 교회로 침투시킨 뒤 '마지막 때 하나님에 알곡을 모은다'는 식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한다"면서 "신천지 사례에서 예방의 중요성이 확인된 것처럼 전능신교의 정체를 성도들에게 미리 알리고 경계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능신교는 최근 국내 주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충북

괴산에 '득승교회'란 이름의 대규모 수련원을 짓고 국내 포교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전능신교는 2011년쯤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부터 한국어판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체 교리가 담긴 영상 콘텐츠를 올리며 포교에 나섰다. 한국교회도 이 무렵부터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경계해 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2013년 6월 전능신교에 대해 "여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이단"이라며 "이들로 인한 미혹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예정고신과 기독교대 한강리회가 이단으로 규정했다.

전능신교는 '중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떠난 난민'이라며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18년 말까지 총 4839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 중 1000여명이 전능신교 신도라는 통계도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전능신교 신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전능신교 피해자라고 밝힌 중국인 20여명이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 신앙은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사이비종교 전능신교는 우리 가족을 박해하고 산산조각냈다"면서 "전능신교 신도들은 난민법을 악용해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한국에 거주한다. 이들의 난민 신청과 비상식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목사는 "중국 내 100만명 이상의 신도가 난민신청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은 주로 기성 교회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현 지인을 대상으로 포교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로 '1일 교단총회' 열린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27일 제114년차 총회 개최

사상 초유 1일 교단 총회가 열린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류정호 목사) 총회 임원회는 오는 27-28일 예정된 제114년차 총회를 27일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에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원회는 최근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하는 상황을 주시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총회는 오전 10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모든 회무를 마친다. 저녁 7시에는 교단장립 기념 및 총회장 이취임예배를 드린다.

회무가 하루로 줄면서 총회본부 재건축연구 보고 등 중대 사안만 제외하고 모든 보고를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 임원 선거도 투표소를 예정보다 추가 설치해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총회는 철저한 방역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전한 총회 준비위원장에 부총회장 한기재 목사를 선임했다. 서울신학대 정문에서부터 열 감지기를 통한 발열 체크, 마스크 및 안면대, 위생장갑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모든 감염 예방 조치를 총동원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한 대의원 지정좌석제를 운영하고 외부 인사는 일부 내빈과 취재기자를 제외하고 출입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 세기총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회기 시작

8회기 1차 임원회의 후 노숙인에 밥나누기 행사

사단법인 세계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5월 21일 오후 7시 서울역 뒤(서부역)에 위치한 "(사)참좋은친구들"에서 어려운 이웃인 노숙인들과 함께 밥을 나누는 행사로 제8회기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세기총 제 8-1차 임원회의를 마친 후, 임원회의 참석 임원과 해외 지부장들이 함께 했으며, 예배는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의 사회로 대표기도 상임 회장 김동욱 목사, 식사기도 토크 비아 지부장 김선호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인사 및 광고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참좋은친구들이 이사장 신석출 장로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10:36-37)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강도를 만난 자가 될 수 있으며 강도 만난 자에게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노숙인들에게 곡을 서분하고 있다.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는 참 이웃"이라고 말하고 "세기총은 매년 회기의 시작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협력하며 돕는 단체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예배 후 코로나19로 인해 준비된 도시락과 국을 세기총 가족들의 봉사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전달했으며, (사)복음의전환(이사장 고정민 장로)에서 제공한 머리 빛을 선물로 전달했다.

세기총은 이날 8차 임원을 확정하고 세기총 지부 확장을 위한 방안과 계획을 처리했으며, 정관 수가 될 수 있으며 강도 만난 자에게

임하고, 젊은 목회자 참여를 위한 기구를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에 앞서 당일 오후 4시에 는 세기총 회의실에서 다문화IV(대표이사 장영선 장로)와 세기총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공동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서 조일래 목사 대표회장은 "많은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TV와 공동협력 업무 협약식을 갖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세기총의 주 사업인 다문화가정 부모초청 및 부모초청세미나와 관련하여 서로 유대관계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혔다.

다문화IV 대표이사 장영선 장로는 "한국에서 다문화인이 300만을 넘는 시대에 다문화이주민 가정의 사회적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주민 가정들을 위한 생활의 조력자로서 화합의 장으로 출범한 다문화TV는 이들 가정의 청소년과 부모 및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충격을 극소화하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다문화가정 부모초청과 다문화가정 부모초청 세미나 사업을 해온 세기총과 공동협력을 하게 된 것은 아주 민 가정들에게 더 큰 희망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세기총)

## 제17회 홀리스피리트맨 메달리온 수상자 확정

목회자 이수형 목사, 교육자 서철원 교수, 사회봉사 윤요셉 목사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양협의회(이사장 안준배 목사) 홀리스피리트 맨 메달리온 선정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제17회 홀리스피리트 맨 메달리온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수상자는 목회자부문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담임), 교육자부문 서철원 목사(개신대학교 총신대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 사회봉사부문 윤요셉 목사(서울역복합촌 모리아교회 담임)이다.

목회자부문 수상자 이수형 목사는 순복음춘천교회 초대 김주환 목사에게 이어 제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여 성령운동으로 지역사회와 근교, 한국교회연

합, 선교지지역을 주도했다.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성령아프리카2019의 주강사 춘천성시화운동, 사랑나눔은 동으로 지역복지로 성령봉사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교육자부문 수상자 서철원 교수는 1982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신학박사를 취득하고 개신대학교대학원 조직교수, 총신대 신대원 교수로 조직신학, 교의신학, 성령신학, 교리사를 신학도와 목회자에게 교수했다.

사회봉사부문 윤요셉 목사는 서울역 동자동 입대의 쪽방촌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민선교에 헌신해 성령으로 낮은 곳에 임

## 시론

(3면에서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후원금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 모두가 이 후원금을 오용하고 있지 않는가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 것

인 양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세인들의 많은 지탄을 받아왔고, 사학은 사학대로 사학의 원래의 설립목적을 구현하기보다는 설립자나 설립재단의 이익창출에 악용되는 일이 빈번하므로 사학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곱

지 않다. 선교단체와 선교사들 역시 눈물어린 선교후원금으로 선교지에 설립한 학교나 기관 혹은 재산들을 선교의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 선교지에서 오만하게 주인 행세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많이 목도하게 된다. 작금의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의 비행을 보면서 그들을 단

순히 비난하는 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후원금을 오용하고 있는 우리 각자를 반성하고 이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 북한, 성경 갖고만 있어도 공개처형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0' 발간

성경책을 소지한 주민을 처형하는 등 북한의 기독교 탄압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연구기구 통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0'을 통해 2018년 평안북도 평성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이 공개 처형됐다고 밝혔다. 백서는 탈북자 118명 심층 면접과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백서는 2015년 황해북도 길성포 향에서도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

성 2명이 공개재판을 받은 뒤 처형됐다고 전했다. 다만 2018년에 이어 2019년 조사에서도 공개 사형집행은 줄고 있다는 증언이 수직됐다.

전문가들은 '비공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공개 처형이 지행한다"는 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만큼 심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 최시우 팀장은 14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북한도 국제사회 여론 등에 민감하니 공개처형 건수가 줄어든 것 같다"면서도 "북한은 공포로 유지되는 사회다.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보여주거시, 혹은 시범 케이스로 공개 처형을 한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최근 평양에 단속반이 출동해 밀수하던 사람들, 성경 소지자 등을 많이 잡아갔다고 들었다"며 "지방에서도 이런 단속이 여러 곳에서 이뤄지지 않았을 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 현수 폴리 대표는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미신으로 여기고 기독교인을 간첩으로 몰아 잡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성경책을 소지한 게 밝혀지면 가족까지 밤에 몰래 끌려가곤 한다"고 전했다.

백서는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A씨의 증언을 인용,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고 개인적 신앙생활만 해도 정치범으로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폴리 대표는 "국경 주변 강에 가만 물에 빠진 성경책이 많은데 북한 주민들이 선교사 등을 통해 구호물자와 함께 받은 성경책을 버린 것"이라며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종교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북한에 있을 때 종교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증언한 북한이탈주민도 상당수였다고 전했다. 북한에 공개된 일부 교회 역시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대외선전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우울증과 영적 치유” (17)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 8. 영적 혼란

한번은 작은 기도모임을 인도하고 있어서 원을 그려 앉아서 기도제목에 관해 토론하고 있을 때였다. 그 방에서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다른 한 여인이 내게 말했다. “저 여인은 귀신들린 사람입니다. 밤새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어요.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예요. 우리 가 저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보안 경찰이 벌써 그녀를 돕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다.

있어서 당신이 거울을 보면 그녀의 얼굴을 보이게 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영으로 장난치는 겁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당신이 방에 있을 때 그녀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럼요, 나한테 말을 하는데 그녀를 떨쳐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제가 이것을 제안할게요. 다음번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꾸짖고 떠나라 하세요. 그런 후에 비명을 지르지 말고

마귀의 음성이었던 거죠. 제가 전에 꿈속에서 마귀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다른 사람을 증오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즉시로 분노를 품고 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귀는 내가 그 사람에게 더욱 분노하도록 상황을 이끌어간 겁니다. 자, 이제 용서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몰라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세요. 당신은 용서하지 못하는 영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려면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저를 해하려 한 그 여인을 축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에게는 효험이 있었고, 당신에게도 유효할 겁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인 것이다. 마귀가 바라는 것은 그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응하기보다는 그저 무시해 버리고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 누군가 미워하기보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것 익혀야 분노 품었던 것 대한 용서구하는 것도 주님의 도움으로

그들에게 우리는 그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녀가 귀신에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크리스천이예요. 제가 전에 그녀와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녀가 귀신의 음성을 듣고는 그것에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중 일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잘 모를 겁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다음날 그녀를 불러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용서할 수 없는 한 여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나는 거울조차 볼 수가 없어요. 만일 내가 거울을 본다면, 내 얼굴을 보는 대신에 그 여자의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며 나한테 상처를 입혔어요. 난 그 여자한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당신은 그녀를 용서하고 당신의 그 분노를 떨쳐내야 합니다. 마귀는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알고

귀신이란 싸우거나 다투지 마세요. 그저 주님께 더 귀 기울이고 귀신의 음성을 신경 쓰지 않게 기도하고 성경책을 더 많이 읽기 시작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우리가 미움과 분노에 더 집중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 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러는 것이므로 당신은 용서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저도 한 번은 누군가에게 속상하고 화가 나서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울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 입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내 등에서 비명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바로 내가 화가 났던 바로 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 때 난 그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용서가 그녀가 해결해야 할 분야이므로, 고통을 조금씩 이겨나감으로써 주님이 그녀가 치유 받아야 할 다른 분야까지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을 도와주시 수 있으므로, 분노를 품고 있었던 데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설을 떠났고 그녀가 떠나기 전에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의 행동이 어땠는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어떤 일인지 그녀가 양전해졌고 더 이상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 가슴에 어떤 치유를 얻은 듯 보였다고 말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엡4:26-27).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히12:15).

yonghui.mcdonald@gmail.com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 9. 구약적 가정관

구약 성경에서는 가정을 하나님이 손수 직접 만드신 창조적 산물로 보았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기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가정에 관한 특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 1. 가부장적 대가족제도

구약에서의 가정은 아담 이후 구약시대의 모든 가족(출1:21), 친족, 가문(대상4:21), 가솔들을 총칭하는데, 구약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정이란, 혈연이나 결혼으로 이루어진 직계가 족뿐만 아니라, 친(창46:5-7), 노예(창17:23,27), 종, 나그네, 심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벧전2:9)으로서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음을 볼 때, 구약의 가정은 어떤 의미로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제도가 확립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제사가 행해진 것을 보아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제사 사건입니다(창4:2-4). 아담-아벨-에녹-노아로 이어지는 천지창조시대와 아브라함-이삭-야곱-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에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같은 가정의 예배(제사)적 기능

말씀을 가르치는 최초의 교사였고,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지키고 행하며 순종하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¼ 정도의 작은 땅에 인구는 1천5백만 정도이고, 대부분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노벨수상자의 32%가 유대인일 정도로, 유대인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헤마교육 때문인 것을 감안할 때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4. 부모공경

하나님이 시나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 중 인간에 관한 6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 가부장적 대가족제도 따라 형성되고 유지되며 교회 역할 부모교육의 장이며 하나님의 모형 부모에게 순종은 필수

지어 전쟁포로까지도 모두 포함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가정은 대가족제도(창24:38)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구약의 가정은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에 따라 형성되고 유지되었으며,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 대표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가족들의 신앙과 생활의 전 분야를 이끌었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관리하고 양육하는 가정의 관리자로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대가족제도 하에서의 구약의 가정은 가문과 혈통의 계승을 위해 남아선호 사상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장자상속과 장자축복을 전통으로 하여 여자와 노인과 아이는 숫자로 계승되지 않았던 인권유린과 불평등의 산물이었습니다.

### 2. 제사중심의 가정

신명기 6장 4-9절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헤마교육을 보면 부모의 제사장 역할을 엿볼

은 교육이나 친교 등보다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예배(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그리고 경배와 찬양 감사가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 3. 헤마(Shema)적 가정교육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 가네 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6:5-7)라고 구약에서는 헤마적 가정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헤마’(Shema)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으로, 이는 단순히 ‘들으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듣고 지금 즉시 순종하라는 의미까지 포함된 명령어입니다. 구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헤마적 가정교육을 볼 때, 가정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최고의 학교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출20:12)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가정의 질서와 축복에 관한 말씀으로, 가정의 대표 부모, 특히 아버지를 세우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렘6:1-2)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치는 자는 곧 하나님께 불순종, 저주, 대적하는 것이므로,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런 불효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출21:15,17, 레20:9, 잠30:17).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므로,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구약에서의 일관된 전통적 가르침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 714-0691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b>강남중앙감리교회</b></p> <p>담임목사: 노재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p>	<p><b>군포제일교회</b></p> <p>담임목사: 권태진</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지체예배: 오후 7:30</p> <p>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p>					
<p><b>금관교회</b></p> <p>담임목사: 김정민</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p>	<p><b>든든한교회</b></p> <p>담임목사: 장항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침니예배: 오후 9:00</p> <p>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b>로마한인교회</b></p> <p>담임목사: 한영우</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메일)</p> <p>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8(교무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b>새에덴교회</b></p> <p>담임목사: 소강석</p> <p>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평일) (월) (화) (목) (금) (토) (일) (휴무)</p> <p>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b>성문교회</b></p> <p>담임목사: 황정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p> <p>Tel. (0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42-073)</p>	<p><b>성실교회</b></p> <p>담임목사: 김영복</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www.seongsil.or.kr Tel. (82)2-999-9998, Fax. 38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p>	<p><b>성일교회</b></p> <p>담임목사: 윤상욱</p> <p>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p> <p>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173-26호</p>
<p><b>수정교회</b></p> <p>담임목사: 이성준</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104-231)</p>	<p><b>승중교회</b></p> <p>담임목사: 최영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p> <p>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사동 137번지</p>	<p><b>시온소교회</b></p> <p>담임목사: 김철승</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p> <p>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p>	<p><b>신길교회</b></p> <p>담임목사: 이기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p>	<p><b>신천교회</b></p> <p>담임목사: 박영석</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p> <p>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역곡로 17길 29(잠실동)</p>	<p><b>신촌교회</b></p> <p>담임목사: 박노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산동 49-45</p>	<p><b>안암 제일교회</b></p> <p>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82)2-2648-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3길 50-1</p>
<p><b>양곡교회</b></p> <p>담임목사: 지용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p> <p>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통영로 415</p>	<p><b>왕성교회</b></p> <p>담임목사: 김요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24 (151-029)</p>	<p><b>장위제일교회</b></p> <p>담임목사: 신일권</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p> <p>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강위동 79-12</p>	<p><b>주안교회</b></p> <p>담임목사: 주승중</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p> <p>Tel. (02)3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p>	<p><b>창대교회</b></p> <p>담임목사: 최용도</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p>	<p><b>청주주님의교회</b></p> <p>담임목사: 최현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00</p> <p>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월동 259-12</p>	<p><b>충신교회</b></p> <p>담임목사: 이천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p>



### 페루

살롱~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부 사역자 여러분들과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전 세계가 COVID로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남미 지역의 페루는 다른 대륙에 비하여 COVID가 좀 늦게 감염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감염자와 인명 피해가 가파른 추세로 확산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주간 동안 대통령의 명령으로 강제 자가격리 조치가 선포되어 시행되는 중이지만, 살길이 막막한 서민계층의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재래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량 감염이 확산되어, 감염자 숫자가 세계에서 13번째, 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서 2번째로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수도인 리마를 방문하였다가, 비상사태 선언으로 일체 학교가 전면 마비되면서 발이 묶인 지방 주민들이 정처 없이 걸어서 귀향길을 향해 걷는 모습이 TV에 중계되기도 하고, 아주 먼 지역의 주민들은 공군기지로 밀려들어서, 기지본부를 점거하면서 자기들 고향으로 데려다 달라는 농성을 벌이는 모습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COVID가 확산 되어서 교도소 내부의 폭동 소식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데, 반면 경범죄로 수감된 죄수들이 대량 방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구호품을 빼돌리는 지자체 시정 공무원들 수 천명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회 전반의 보안 유지를 하고 있는 군, 경 병력들이 사용하여야 할 마스크와 기타 COVID 안전기구들을 빼돌리는 경찰 지도부들의 부패한 모습도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COVID 환자 치료를 위한 침대 가격을 3배, 혹은 그 이상 부풀려 납품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이 성행합니다...모두가 패악한 인간들의 모습이 속속히 드러나 보여집니다.

페루 정부에서도 긴급 구호 보조금으로 각 가정당 미화 100여 불에 달하는 기금을 풀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받으려 늘어난 긴~ 줄이, COVID의 확산을 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행도 철저히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허가서를 발부 받아 며칠전 8주 만에 처음으로 차를 몰고 저희들 식품과 현지 목사님들 가정에 구제할 식품구입을 위해 마켓을 방문하였습니다.

거의 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슈퍼마켓에는 물품이 풍성하게 구비되어 있었지만, 서민들에게 지급된 기초 보조금으로는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그저 그림의 떡으로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2월말에 Lima지역에 계획된 행사가 있어서 하산하였다가, 비상선포로 얼떨결에 이곳에 묶여 현재 리마선교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Huasao의 새생명교회에는 하이메 목사와 교회 리더들이 교회 전반의 일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에는 저희 새생명교회 회의 지교회에 위치한 Patabamba지역에 한 가구당 15kg 정도의 50개 식품꾸러미를 준비하여 배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2차 지원을 Patabamba 와 Huasao 마을에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주일에배와 수요일성경공부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주일학교와 학생, 청년부는 문서통신으로 매주 성경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5월 11일이면 총 8주간 선포되었던 비상 명령이 다시 2주간 더 연장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페루 정부도 더 이상의 물리적인 견제를 지탱하지 못하는 마지막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군인들 역시도 이번 COVID 자가격리 기간 중에 시민 통제근무를 하던 중에 90여명이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을 어귀에 촘촘히 보이던 군인, 경찰들도 이젠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통제가 합법적으로 해제될 예정인 2주후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페루에는 오늘로, 84,495명의 확진자 그리고 2,392명의 사망자가 WHO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매일 늘어나는 사망자의 숫자는 비상 격리 명령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환자들은 산소 한번 마셔보지 못하고 죽어가

는 모습이 TV에 소개되는 처참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물며, 지방의 국회의원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의 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침상에서 의료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모습이 보도매체를 통하여 전역에 전파되면서, COVID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 체계로 병원 마당에서 진료를 기다리다가 차 안에서 죽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요즘 흔하게 들려옵니다.

페루 교계에서는 신앙적인 자중과 회개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들리고는 있지만, 특별하게 하나의 중심점으로 모여서, 이끄는 개체가 없으니 개탄스럽습니다. 아직도 개신교의 힘이 하나로 뭉쳐지려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양하고 활발한 social network 활동을 통하여 주일마다 예배와 성경공부가 이어지는 모습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페루보다 더 많이 사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제가 너무 빠른 아픔만을 푸념으로 냈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리와 환경을 초월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나누며 기도도 함께 중보할 수 있음에 큰 힘이 됩니다.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며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사랑하는 사람들을 COVID로 갑자기 떠나보낸 사

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위하여.

2. 온 세계가 맞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약화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소리가 그들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도록.

3. COVID사태로 이어지는 경제적인 쇼크와 어려움이 서민들의 삶에서 무난히 해결될 수 있도록.

4. 속한 시일 안에 COVID 백신이 연구 개발되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5. 이번 COVID사태를 통하여 인간의 교만하였던 삶의 회개와 온 인류가 능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계기가 되도록

금년은 저희 부부가 안식년을 맞는 해입니다. 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이미 예정되었던 사역들을 진행하고, 후반기에 안식년(월)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COVID 사태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 상황을 주시하면서 계획을 재조정하여 할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벤따리아 현지에서 급하게 도와야 할 주님의 현지 교역자 가정들을 대상으로 구호 작업을 미약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해제 이후 COVID 사태 진행을 관찰하면서 현지에서 필요한 일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선교부에서 수고하시는 한분 한분의 삶에 풍으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기원드리며...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5일  
페루, 벤따리아에서 박 남은, 성숙 선교사 드림  
nameunpark@gmail.com

### 선교 펴기

### 캄보디아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님께, 세상은 원치 않는 역병으로 시달리며 어찌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는 이때 오직 바라볼 수 있는 한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뿐임을 고백하며 안부를 전합니다.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내시고 계시지요?!

캄보디아의 4월은 1년중 가장 더운 달, 캄보디아의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매일 밝갸이 날씨가 38도(화씨100도)-40도를 오르내리면

저의 셋집 안은 40도를 넘는 무더운 찜질 방으로 변합니다.

이곳도 3월 초에 벌써 학교를 닫고 교회 모임도 금지하고 아이들도 가르칠 수 없게 되는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지난 주말 캄보디아 새해에 많은 사람들이 콩나물시루처럼 봉고차에 매달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니다. 그리고 새해 행사가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여행자들이고 아직 사망자가 없지만 이 나라의 의료시설이 워낙 낙후되어 만

일 바이러스가 문제되기 시작하면 아마 감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으며 은행도 큰 가게도 한사락씩 입구에서 열을 재고 들여보내고 작은 가게들도 줄을 쳐놓고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인이 물건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 건축 허가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건으로 일꾼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을 구하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십시오.

아직 건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요즘 몇 번 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셋집에 하수가 막혀 물이 집으로 들어왔고 집 가운데로 흘러 있는 시멘트 옥상에서 물이 새 들어와서 밤중에 물 난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 짝은 오늘 따오마오 마을로 이사를 하고 작은 창고를 좀 고쳐서 그곳에서 살면서 건축자재도 관리하고 건축을 도울 것입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자유로이 왕래하고



건축도 순조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동역자 되

시는 여러분께 어려움 속에서도 영광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캄보디아 팜뽕집에서 하혜자 선교사 올림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 교회안내

<h4>나성영락교회</h4> <p>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p>	<h4>나성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차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후 1:30(영양)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4>나침반교회</h4> <p>담임목사: 민경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영양예배: 오전 6:30 토요일한국교회: 오전 9:00</p> <p>Tel: (562)681-0691, Fax: (562)681-0698, www.nachi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p>	<h4>남가주든든한교회</h4>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4>남가주사랑의교회</h4>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전 1:20 영양(영양) KDC, 링컨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4>디아스포라선교회</h4>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415)559-7728 (전화 회선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4>머무는교회</h4> <p>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수원빌딩 맞은편) Office: 106 S. Hobart St.,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장소)</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새벽: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4>빛과 소금의 교회</h4>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부분)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1:30(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p> <p>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열매교회</h4>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8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4>엘피스사역원</h4> <p>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연합교회회 협동목사) 성경사역(월-금) 오전10:30-오후4:30(본당) 사역장: 1. 영성훈련, 2. 영성강화, 3. 영성심화, 4. 영성회개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사, 3. 상담사역, 4. 네트워크 사역</p> <p>http://www.elpisfamily.org / Tel: (714)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사역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p> <p>Tel: (714)446-6200, www.graceml.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세운교회</h4>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모임: '아름답게 살아주세요' 성령대행: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4>좋은마음교회</h4>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토렌스조은교회</h4>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Youth 예배: 오전 9:45(10: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핼(PIM)선교회, 교회</h4> <p>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p> <p>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p>	<h4>하늘소망교회</h4>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아름답게 살아주세요' 오전 9:30 오전 7:20(금)</p> <p>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 영어로 보는 성경 (66)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 3 John 1:5-7

5) Dear friend, you are faithful in what you are doing for the brothers and sisters, even though they are strangers to you, 6) They have told the church about your love. Please send them on their way in a manner that honors God, 7) It was for the sake of the Name that they went out, receiving no help from the pagans, 8) We ought therefore to show hospitality to such people so that we may work together for the truth.

(NIV 2011)

### WORD & IDIOM

\* be faithful in ~: ~에 성실한 \* even though ~: 비록 ~ 일지라도 \* for the sake of ~: ~를 위해서 \* pagan: 이교도 \* hospitality: 환대 \* ought to+V: (V)해야 한다 \* so that A may ~: A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GRAMMAR

5) Dear friend, you are faithful in what you are doing

사랑하는 친구여, 너는 (in ~)에 성실하다 네가 하고 있는 것(일)

for the brothers and sisters, even though they are strangers to you,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하여 비록 그들이 너에게 낯선 사람들일지라도 => 사랑하는 친구여, 비록 그들이 너에게 낯선 사람들일지라도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너는 성실하다.

\* <what you are doing>은 <what you do, 네가 하는 것(일)>의 현재진행형으로 앞의 전치사 <in>의 목적어로 쓰였다.

6) They have told the church about your love,

그들이 교회에게 말하여 왔다 너의 사랑에 대하여 => 그들이 너의 사랑에 대하여 교회(회중)에게 말하여 왔다.

Please send them on their way in a manner that honors God,

부디 그들을 보내라 그들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방법)으로 => 부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그들의 길로 그들을 보내주어라.

\* <They have told the church about ~>는 현재완료시제(have+pp)로 된 3형식(S+V+O) 문장이다. 3형식에 쓰이는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을·를)로 해석을 하지만 이 문장에서의 목적어 <the church>는 <~에게>로 해석한다.

7) It was for the sake of the Name that they went out,

(that ~이하) 이었다 그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이 밖으로 나아갔다

receiving no help from the pagans,

받으면서 무(無) 도움 이교도들로부터 => 이교도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그들이 밖으로 나아간 것은 그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

\* <it>는 <that ~>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주어>로 쓰였다. 즉 <That they went out, receiving no help from the pagans>가 <진 주어>이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It>를 앞의 주어자리에 놓고 문장을 완성시킨 후 뒤에 배치한 것이다. \* <that~이하>의 문장은 분사구문이다. 이 경우 <receiving>은 <~을 하면서>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였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교도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

8) We ought therefore to show hospitality to such people

우리는 (to~이하)를 해야한다 그러므로 환대를 보여주는 것 그러한 사람들에게

so that we may work together for the truth,

우리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

### STUDY & THOUGH

■ 5절에서의 성실한(faithful)이란 말은 '신앙'이란 뜻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바, 이는 형제를 대접하는 수신자인 가이오(Gaius)의 행동이 건성이 아니라 그 자신의 신앙에 기초한 형제 사랑의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가이오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를 하는 순회 선교사들이었으며 이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당연한 것이었다. 7, 8절 말씀은 이들을 대접해야 하는 당위성 부여한다.

■ Help those who devote themselves to spreading the Gospel.

livingstonech@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겸손의 길(막9:33-37)찬465장

그리스도의 제자는 겸손의 길을 갑니다. 항상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의 교만을 죽이는 십자가의 길에 관해 주님은 본문에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첫째, 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려는 욕망을 이기려면 언제나 종의 도를 걸어야만 합니다. 35절, 주님은 그 기준을 분명히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소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겸

손은 대접받고 군림 하는 길이 아니고 소자를 대접하기를 힘쓰는 길입니다(36-37). 셋째, 겸손이란 제자를 진정 높이지게 하고 진리를 위해 살려는 열심을 가져옵니다(35). 우리 주님이 진히 낮아지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셨습니다(빌 2:6-11).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의 권위를 세상에서 유지하려면 주님처럼 낮아지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을 제일의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 화 소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막9:38-42)찬519장

소자에 대한 태도가 주를 위한 태도임을 가르치신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첫째, 주를 위한 소극적인 수고라도 귀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38-39).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같은 그룹에 속한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둘째, 주를 위한 작은 섬김도 보상을 잃지 않습니다(41). 상급에 대한 사모심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일

에 상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히11:6). 또한 이것은 작은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셋째, 소자의 실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42). 작은 자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못한 재능과 특권을 가진 소자를 무시하지 말고 그를 대신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큰 자로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대인으로 살아갑시다.

## 수 죄를 미워하라(막9:43-47)찬281장

하나님나라 백성은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 범죄하는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다(43-47). 범죄하는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는 용단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그 실상을 알려주실 때 가능합니다. 이사야는 그 빛 아래서 자신의 더러움을 알았고(사6:6)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죄인임을 때

달았습시다(눅5:8). 둘째, 실재하는 지옥에 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43-45).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의 실재함을 아는 것 역시 성령이 눈뜨게 하심에서 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지옥이란 실상을 인식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나라의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47). 죄를 미워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자로 삼시다.

## 목 지옥의 실상(막9:48-50)찬43장

히브리어로 게헨나 곧 지옥이란 어떤 곳입니까? 첫째,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릅니다(48). 작은 불이 산 전체를 태우듯 그 불은 영혼과 육체 구석마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장소입니다(49). 그 불은 구덩이도 죽지 않고 무한대로 고통만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마다 번질 위에 놓인 생선에 소금을 칠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자극적 고통

만이 영원히 있습니다. 셋째, 화목이 없는 곳입니다(50).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자는 자연과 이웃과의 화목을 갖지 못합니다. 지옥에서 무자비한 형벌로 비유된 소금은 이 땅에서 구원으로 비유됐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만이 맛을 내는 삶 곧 순결과 화목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만이 지옥을 이깁니다.

## 금 창조원리를 따른 혼인(막10:1-12)찬305장

창조원리를 따른 혼인(막10:1-12)찬305장 그 나라 왕이 중요시하는 언약은 가정생활에서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만든 혼인의 가르침을 주님은 창조원리로서 분명히 해석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증서를 주어 참된 혼인을 지키게 하심으로(1-5) 본래의 가르침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둘째,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건강한 혼인생활을 하게 하

셨습니다(6). 율법 전에 창조원리에 근거를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패성은 가정생활을 더럽힘으로 짐승처럼 만들었습니다. 셋째,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연합을 가르치셨습니다. 창조원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창조인 구속은 하나님의 형상 의, 인, 신을 더 분명히 가진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토 어린이 같은 신앙(막10:13-16)찬456장

아이로 비유된 무사기와 진실된 마음을 가진 신앙은 그 나라 백성이 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왜 이런 신앙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첫째, 그 마음이 하나님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13-14, 마5:3). 산상보훈에 나타난 팔복(마5:3-12)은 가난한 심령을 기본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하나님나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15).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그 나라(롬14:17)는 겸손하고 진실된 사람

만이 머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또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16). 성령으로 증거된 복음은 성령으로 깨달아져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합니다. 성령으로 새생명을 가져 이 마음을 가진 우리는 그 복된 신앙을 이웃에게 전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_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 새로운 현실로 자리 잡은 재택근무

## BBC, '재택근무의 역사 50년이 주는 교훈' 보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왜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원격 근무의 장점은 거의 반세기 동안 논의됐다. 많은 사상가가 머지않은 미래에 노동자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일이 노동자에게 오리라 예측했었다.

1969년 미국 특허청 소속 과학자 앨런 키론은 워싱턴포스트에 컴퓨터와 새로운 통신수단이 삶과 노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글을 썼다. 그는 거주지, 연결, 전자공학이 조합된 "도미네틱스(dominetics)"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딱 어울리는 용어는 전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것들을 조합한다는 아이디어였다.

1973년 석유수출국기구의 석유파동과 연료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잭 닐즈가 이끄는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연구 하나를 진행했다. 닐즈는 이것을 "텔레커뮤팅(telecommuting, 원격통근)"이라 불렀다.

닐즈의 팀은 직원 2000명 이상을 둔 LA에 있는 한 보험사를 연구했다. 이 회사 직원들의 하루 평균 통근거리는 34.4km였다.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1974년 기준 273만 달러에 달했다.

1976년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텔레커뮤팅을 이용해 조직을 분권화하는 과정이 기술 덕분에 더 경제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닐즈는 "텔레커뮤팅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했다.

위성 사무실에서의 근무

그래도 기술은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기는 했다. 당시 사람들이 아는 통신장비는 전화와 팩스뿐이었다.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초창기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가정은 매우 드물었다. 그래서 연구결과는 직원들이 지역 위성사무실(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일하는 중앙사무실의 반대개념)에서 일하게끔 업무를 재설계하는데 더 중점을 뒀다.

1970년대 후반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자 집안에서 '텔레커뮤팅'의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면 애플사의 획기적인 애플 II가 출시된 1977년이 그 시

기였다. 1970년 '미래쇼크'를 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1980년 후속작 '제3의 물결'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예측했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가정이 "경제적, 의료적, 교육적,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미래사회에서 중심단위"가 되고 "놀랄 만큼 새로운 중요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들을 단순히 변형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한 문화적 추세를 비추어 주고 있으며 온라인 사역은 예배생활의 일부에서 분명 변화시키고 있다. 바로 집 밖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예배를 드리고, 줌(Zoom)을 이용해서 소그룹의 나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난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와 그 이전 예배 사이의 차이점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는 재택근무 중이다. BBC는 재택근무의 역사 50년을 짚어준다(50-year history of telecommuting).

인터넷이 오다

토플러는 기술의 잠재력을 정확하게 짚었다. 하지만 원격

다. 정보 및 정보와 관련된 사무실 업무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라. 전화기, 쌍방향 비디오, 전자 메일, 팩스, 개인용 컴



## 기술 한계 극복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 욕구 충족 '근거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형태' 예상

근무가 보다 수월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러나 인터넷은 빠르게 성장했다. 당시 경영학 전문가인 피터 드러커가 1993년쯤이면 사무실 통근이 쓸모없어질 것이라 자신 있게 선언할 정도였다. 1984년에 쓴 이메일을 한번 보자.

"19세기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훨씬 더 쉽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할 수 있

퓨터, 모뎀 등 이를 위한 도구가 이미 나와 있다."

비전과 현실

기술은 이랬었지만 재택근무의 성장은 더뎠다. 2014년 IBM이 북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의 절반 혹은 전체가 재택인 직원은 전체의 9%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와 미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재택근무 비율은 2019년 말에도 20%를 밑돌았다.

호주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의 3분의 1이 집에서 일을 한다. 그러나 이 통계는 사무실에서 끝내지 못한 일을 집에 와서 하는 이들과 집까지 집체되면서 부풀려진 숫자다.

재택근무의 더 큰 확산을 위해서는 두 개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하나는 닐즈도 인정했던 조직 문화다.

인간이 조직을 구성하는 방

회적 문제에 대한 반대 진영으로 '함께 일하기 운동(the co-working movement)'이 나오기도 했다. 원격 근무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말이다.

심지어 재택근무와 관련된 전자 기기와 기술을 개발하는 IT 회사들조차 사무실 중심적인 근무를 고수하고 있다. 2013년 이후의 신입 CEO 마리사 메이더는 "사람들은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 더 협력적이고 혁신적"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이 집에서 일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직원들이 서로 섞여서 일하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기엔 집착한 듯하다. 이러한 공간은 사람들의 대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화장실 같은 공간에 방점을 찍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주변 환경은 조직적이고 문화적인 장벽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현재 재택근무는 그야말로 새로운 현실이다. 기업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6개월이 지난 무렵엔 재택근무가 어느 정도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필요와 관련된 이슈는 쉽지 않은 문제다. 토플러가 말했듯, "산업에서 대면 접촉과 그런 접촉 가운데 생겨나는 (알지 못한 사이에 일어나는) 비언어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아마도 미래는 닐즈의 생각과 조금 더 닮아있을 것이다. 기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는 근거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형태에 가까워질 것이다.

## 코로나19와 교회

(11면에서 계속)  
2. 연속성과 혁신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은 지나간 이전 것들과의 근본적 단절보다는 항상 변화하는 문화적 컨텍스트 안에서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요하게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이라고 통상 간주하는 다매체성(multimediality), 쌍방향성(interactivity), 텍스트 콜라보(textual collaboration) 등은 디지털 이전 시대 미디어를 형성할 때도 이미 존재했던 것들이다. 디지털 미디어가 종교적 행위

3. 지역과 상관없는 거룩한 공간과 멀티사이트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과 관련된 세 번째의 핵심특징에는 공간에 대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공간들이 나타났다. 이 공간은 훨씬 복잡하고 융합적인 것이다. 선택에 따라 가족들을 위한 장소, 혹은 작업장, 비형식적인 공적 모임을 위한 제3의 장소, 혹은 새로운 멀티 사이트 현실 등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지역과 상관없는 거룩한 장소들의 출현과 오프라인 예배당으로부터 예배의 떠남은 직접 함께 참석하는 것보다 예배와 동

시성이 우위를 점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디지털로 매개되는 예배에서는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는 것"보다,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결정적인 특징이 되어가고 있다.

4. 단선적(linear) 예배를 넘어서 네 번째로 "단선적(linear)" 사역들로부터 보다 "리조매틱"(rhizomatic: 마인드맵처럼 뿌리를 뻗어나가는 현상)하고, 초텍스트적인 경험으로 계속 변화할 것이다.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소리, 비디오, 혹은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스크린에 나타나는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

이 즉각적이며 쌍방향적으로 깊이 몰입하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5. 휴대와 이동 가능, 접근이 열려 있는 예배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의 마지막 특징은 넓어지고 광범위해진 "열린 접근"이다. 스마트폰의 출현 이후 예배와 기도, 찬송은 새롭고 분명한 방식으로 휴대와 이동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세계들 안에서 휴대 가능하고 이동 가능한 예배, 전(全) 지구적인 기도와 찬송들이 전(全) 세계적으로 번성하여 펼쳐져 나가게 되었다.

이 즉각적이며 쌍방향적으로 깊이 몰입하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5. 휴대와 이동 가능, 접근이 열려 있는 예배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의 마지막 특징은 넓어지고 광범위해진 "열린 접근"이다. 스마트폰의 출현 이후 예배와 기도, 찬송은 새롭고 분명한 방식으로 휴대와 이동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세계들 안에서 휴대 가능하고 이동 가능한 예배, 전(全) 지구적인 기도와 찬송들이 전(全) 세계적으로 번성하여 펼쳐져 나가게 되었다.

이 즉각적이며 쌍방향적으로 깊이 몰입하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5. 휴대와 이동 가능, 접근이 열려 있는 예배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의 마지막 특징은 넓어지고 광범위해진 "열린 접근"이다. 스마트폰의 출현 이후 예배와 기도, 찬송은 새롭고 분명한 방식으로 휴대와 이동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세계들 안에서 휴대 가능하고 이동 가능한 예배, 전(全) 지구적인 기도와 찬송들이 전(全) 세계적으로 번성하여 펼쳐져 나가게 되었다.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의 다섯 가지 핵심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온라인 공간이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온라인 공간이 기도와 예배, 소그룹 사역을 위한 유례 없이 부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서 오프라인 예배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화상 사이를 움직여 다니시는 하나님을 찾는 길을 열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깊은 고민과 성찰에서 나온 테라사 박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리더십 석.박사 MBA, DL, Ph.D.**  
리더를 위한 전문 학위과정  
34년 전통, 70여개국 동문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한국어, 영어, 특강, 온라인  
미국유학 가능 (SEVIS I-20, J-1 Visa)

**Graduate School of Leadership 리더십 대학원**  
M.B.A.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Major  
Brain / Gifted Educational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교육  
Management Innovation Strategy Leadership 혁신경영 전략  
International Culture & Arts Leadership 국제문화예술  
Organizational / Ministry / Mission Leadership 조직, 목회, 선교  
Real Estate Management Leadership 부동산 경영  
Defense Fusion Leadership 국방융합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항공  
Public / Political Leadership 공공정치  
Sports Management Leadership 스포츠 경영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